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라모나 포에버

(Ramona Forever·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한 은 주

2017年 12月

라모나 포에버

(Ramona Forever·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재 원

한 은 주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12月

한은주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㉞

위 원 _____ ㉞

위 원 _____ ㉞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7年 12月

Ramona Forever

라모나 포에버

Eun-Ju Han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ecember,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라모나 포에버

라모나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다.

비버리 클리어리 지음

서 평

“라모나는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소녀들 중 한 명이에요.”

-뉴욕 타임즈-

★비저스와 라모나★

“진실한, 가슴 따뜻한 그리고 재미있는”

-미국 도서관협회 북리스트(우수한 리뷰)

★라모나와 아빠★

“관객들과 비평가, 둘 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클리어리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뉴욕 타임즈

★8살, 라모나★

“비버리 클리어리 만세!”

브라보 용감한 라모나!”

-읽기 교사 추천 북 리스트

★용감한 라모나★

비버리 클리어리

라모나 포에버

그림 트레이스 도크레이

▣ Harper Trophy®출판사: 하퍼 콜린스

목 차

1. 부유한 호위네 작은 아빠 5
2. 라모나의 문제 17
3. 착한 아이가 되자 25
4. 고양이 피키 피키 32
5. “그것” 40
6. 놀라운 일 48
7. 서로 지켜보기 57
8. 가족들이 함께 모이다 63
9. 가까스로 궁지에서 벗어난 라모나 69
10. 또 다른 큰 사건 78

1

부유한 호위네 작은 아빠

어느 금요일 저녁, 라모나 이모인 베아트리에체가 그녀의 새 스키복도 자랑하고 저녁도 함께 할 겸 라모나네 집에 들렀을 때 라모나가 “뭐 게요?” 하고 물었다. 퀴비 부인, 퀴비씨, 그리고 실제 이름이 베아트리에체인 라모나 언니 비저스, 그 어느 누구도 라모나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저녁을 먹을 뿐이었다. 고양이 피키 피키는 지하실 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 와서 밥을 달라고 보챘다.

이모 베아트리에체는 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녀의 3학년 조카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라모나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기대 된다는 듯이 물었다.

라모나는 숨을 크게 한 번 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청 부자인 호위네 작은 아빠가 오신대요.” 베아트리에체 이모를 빼고는 아무도 라모나의 기대만큼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라모나는 그녀의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반응이 다소 실망스러웠다. “호위네 할머니께서도 기뻐하셨어요. 호위랑 호위 동생 윌라 진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라모나도 기뻐했다. 라모나는 방과 후에 호위네 집에 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위네 할머니는 엄마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의 손자들과 라모나를 돌봐주고 있었다. 부자 작은 아빠가 누구의 아빠이건 간에 지루했던 방과 후 시간을 재미있게 해줄 것만 같았다.

“호위에게 돈 많은 작은 아빠가 있는 줄 몰랐구나.” 퀴비 부인이 말했다.

“그 분은 호위의 작은 아빠예요. 지금은 호위의 아빠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만.” 라모나가 덧붙였다.

“이런, 호바트 캠프를 말하는 거구나.” 베아트리에체 이모가 말했다. “고등학교 때

내 제자였어.”

“오, 그래 기억난다. 금발이고 곱슬머리에 야구 하던 아이를 말하는 거구나.”
퀸비 부인은 접시를 치우기 위해 라모나에게 접시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모든 소녀들이 그를 보고 귀엽다고 했었지.”

“그랬었지.” 베아트리에 이모가 말했다. “감초사탕을 씹고는 잔디에 뽀곤 했어, 교장선생님에게 프로 야구선수가 담배를 씹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거든.”

“감초 사탕을 씹는 귀여운 호바트는 어디에 갔다가 오시는 거니?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길래 부자가 되신 거야?”

퀸비씨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리고 야구를 했다고?”

“어디더라.” 라모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나라 이름이 기억이 잘 안나요. 동화 같은 이름이었고 낙타가 있다고 했어요.” 나니아 꿈의 나라¹⁾?” “아니야, 그런 이름이 아니었어.”

“사우디아라비아” 비저스가 말했다. 중학교에 다니는 그녀가 천천히 생각을 해보다가 대답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라모나는 내심 자신이 먼저 기억해 내길 바랐다. . “호위가 그러는데 호바트네 작은 아빠가 가족 모두의 선물을 사 오신다고 했대.” 라모나는 비저스가 읽어주었던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황금 주머니를 상상했다. 물론 오늘 아무도 황금 주머니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호위의 작은 아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퀸비씨가 물었다. “모래에 감초사탕을 뽀는 것 말고?”

“아빠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라모나가 말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이제는 모두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욱 관심을 받고 싶어 아는 것이 더 많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석유, 드릴 아니면 장비 같은 거와 관련이 있었어요. 호위가 잘 알아요. 그걸로 호위의 작은 아빠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하지만 라모나네 가족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해야만 했다.

1) 나니아(Narnia)는 C.S.루이스가 그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에서 창조한 가상의 나라이다

“아, 그걸로 돈을 벌었구나.” 콤비 씨가 말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작은 아빠가 죽어서 성에 많은 노예들과 보석, 그리고 희귀한 비싼 와인을 호위에게 남겨줬을 지도 몰라.”

“아빠, 너무 옛날식 개그예요.” 라모나가 타박했다. “그건 책에나 있는 이야기잖아요.”

대화는 라모나를 뒤로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콤비씨는 6월에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고 미술 선생님이 필요한 학교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하의 냉동 창고에서 주말에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콤비 부인은 그녀가 일하고 있는 의사 사무실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두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 했다. 베아트리체 이모는 미카엘이라는 남자한테 함께 스키 타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새 스키복을 사다고 말했다. 비저스는 미카엘이 청혼을 했는지 몹시 궁금해 했다. 이모는 안지 겨우 이주밖에 안되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하지만 1월부터 스키를 탈 수 있는 기간이 몇 달이나 남아있었고 그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 날 저녁, 더 이상 호위의 작은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있었던 그날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으나 호바트 작은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다. 매일 저녁 콤비 씨는 물었다. “돈 잘 버는 부자나리는 아직 이니?” 그리고 라모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라모나는 호위와 학교 가는 버스를 함께 기다리다가 호위에게 물었다. “너에게 부자 작은 아빠 따위는 없어. 네가 전부 지어 낸 거지?”

호위는 지어낸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진짜 작은 아빠가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호위 동생 율라 진도 라모나가 방과 후에 호위의 집에 갔을 때 호바트 작은 아빠와 작은 아빠가 사줬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라모나는 호위와 율라 진에게 다소 뿌루통하게 다른 사람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이러 쿵 저러 쿵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엄마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

았다. 결국 작은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 라모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다. 그들은 작은 아버지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곧바로 걸어갔다. 그 날 호바트 작은 아버로부터 뉴욕에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다. 호바트 작은 아버지는 직접 운전해서 대륙을 횡단하였는데 로키 산맥에서 폭풍을 만나 집에 오는 것이 지연되었다고 하였다.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방과 후에 라모나와 호위는 호위네 집 차도에 진흙이 묻어 있는 승합차가 한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작은 아버지다.” 호위는 소리치며 뛰기 시작했다.

라모나는 꾸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진흙이 묻은 승합차가 아니라 검은색 긴 리무진을 타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라모나는 호위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 유명한 작은 아버지는 며칠 동안 수염도 안 깎고 오래된 청바지와 빛바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윌라 진을 무릎 위에 앉혔다. 따뜻하고 달콤한 사과파이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자 이제 무릎에서 그만 내려가렴. 우리 귀염둥이.” 호바트 작은 아버지는 윌라 진을 바닥에 내려 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호위를 꼭 끌어안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 잘 지냈어? 그는 조카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호위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호위의 할머니는 그 주변에서 계속 서 있었고 윌라 진은 작은 아버지의 무릎을 껴안았다.

라모나는 당황스러웠다. 그녀 자신은 그 곳에 속해 있지 않고 오히려 방해자가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라모나는 의자에 앉아 책을 폈다. 그러나 집중 할 수가 없었다. 라모나는 그녀의 눈에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호바트 작은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그냥 순수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 점이 그녀를 크게 실망시켰다.

윌라 진은 잡고 있던 작은 아버지의 무릎을 놓아주었다. “우리 작은 아버지가 가져온 걸 봐.”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빨간 가죽 쿠션이 엮어져 있고 작은 조랑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쌍둥이 의자를 가리켰다. 윌라 진은 그 중 한 쪽에 걸터앉았다.

“이라 달려 늙은 낙타야!” 그녀는 외쳤다. 그리고 라모나에게 알려주었다. “이건 내 낙타야,”

“와 낙타다.” 호위가 선물을 보며 말했다. 그는 율리 진을 흥내 냈다. 낙타처럼 보이는 의자 위에서 조금 더 놀고 나니 그 위에 걸터앉아 있는 거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

흠, 누가 따분하고 오래된 의자를 원하겠어, 라모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동시에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책을 읽을 때 앉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호바트 작은 아빠는 라모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흠, 이 어린 소녀는 누구니?” 그가 물었다. “호위, 여자 친구가 있다는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라모나와 호위는 둘 다 얼굴이 시뻘개졌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 그냥 친구예요.” 호위는 투덜거렸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기타 치는 흥내를 내면서 라모나를 위한 노래를 불러줬다.

“라모나 저 위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
라모나, 종소리는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꼭 안고 너를 아낄 거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아끼는 법을 가르쳐 준 날을 축복할 거야.”

라모나는 그 때 자신은 작은 아빠를 좋아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모나는 그 노래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다. 데이 할아버지께서 포틀랜드에 사실 때 할아버지는 라모나를 놀리려고 이 노래를 부르곤 하셨다. “저는 호위의 여자 친구가 아니에요.” 라모나는 짐짓 어른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저는 엄마가 일하시는 동안 여기에 있어야 해요 그건 - “라모나는 적절한 단어를 골랐다 - 지극히 공적인 관계예요.”

호바트 작은 아빠는 이런 라모나를 매우 재미있어 했다. 그 점은 라모나가 작은 아빠를 더 싫어하게 만들었다.

“작은 아빠, 그만하세요.” 호위가 말했다. 라모나는 호위가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속이 뒤뜰렸지만 다시 책 읽는 척을 했다.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빠가 자신의 작은 아빠가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아니 아예 작은 아빠 자체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베아트리체 이모는 절대 아이들을 놀려서 당황하게 만들지 않고 항상 가족들이 그녀를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 주셨다.

“선물 더 없어요?” 율라 진이 물었다.

“율라 진, 그럼 안 돼.”

호위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막내 아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너무 기뻐했다.

“율라 진 무얼 가지고 왔는지 맞춰볼래?” 작은 아빠가 물었다. “밖에 있는 차에 있어, 보여줄게.”

“저도요?” 호위는 벌써 아까 짜증냈던 것을 잊어버렸다.

“물론이지.” 호위가 문밖으로 나왔을 때 호바트 작은 아빠가 말했다. “푸른 잔디와 나무가 가득한 이곳으로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라모나는 호위가 작은 아빠에게 묻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풀이 없으면 낙타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라모나는 자신이 책에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작은 아코디언을 들었다.

“할머니, 보세요!” 호위는 자전거의 일부처럼 보이는 것을 굴리고 있었다. “진짜 자전거예요!”

“부서졌어?” 율라 진이 물었다. “이건 바퀴가 원래 하나라고.” 호위가 말했다.

“호바트, 대체 무슨 생각이니?” 호위의 할머니는 외발 자전거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제가 호위의 나이였을 때 어머니가 갖지 못하게 했던 외발 자전거가 떠올랐어요.” 작은 아빠는 말했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되요. 제가 다치지 않게 조심할게요.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는 율라 진 옆 마룻바닥 위에 아코디언을 세웠다. “그리고 이건 네 거야.” 그가 말했다.

윌라 진은 아코디언을 바라보았다. “이게 머예요?” 그녀가 물었다.

“이걸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어,” 작은 아빠가 대답했다. “이건 빈 풍의 아코디언이야. 같이 일하던 사람 중 한 명에게 받았어, 그리고 연주하는 법을 조금 배웠단다.”

“예쁘지 않니, 윌라 진?” 호위의 할머니가 물었다. “너만의 악기야.” 네가 이것을 연주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둘게.”

“싫어요!” 윌라 진은 고집스런 표정을 지었다. “지금 연주하고 싶어요!”

호바트 작은 아빠는 아코디언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라모나 저 위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
라모나, 종소리는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

”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빠에 대해 비열하고 못된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았다. 그는 연주하는 것을 멈추고 말했다. “무슨 문제 있어, 라모나? 이 노래 좋아하지 않니?”

“안 좋아해요.” 라모나가 작은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절 놀리시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장난치는 어른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 라모나!” 호위의 할머니는 매우 못 마땅해했다. “어른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선 안 돼.”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호바트 작은 아빠가 말했다. “라모나가 맞아요. 제가 놀렸어요, 이제 안 그럴게. 괜찮지, 라모나?”

“네 좋아요,” 라모나는 작은 아빠가 계속 놀릴 거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면서 대답했다.

“작은 아빠, 작은 아빠, 저거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윌라 진이 즐겼다.

작은 아빠는 윌라 진의 손으로 아코디언의 양쪽 끝을 잡도록 했다. “이 작은 버튼을 누르면서 주름을 접었다 폈다 하면 돼.” 그가 설명했다.

그가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호위가 작은 아빠를 밖으로 잡아끌었다. 호위의

할머니는 호위가 분명 다칠 거라고 확신했다. 라모나는 창문을 통해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바라보았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외발 자전거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모퉁이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봤지, 별거 아니야,” 그가 말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감만 잡으면 돼.”

“호바트 어디에서 그걸 타는 법을 배운 거니?” 호위의 할머니가 현관 입구에서 외쳤다.

“대학에서요,” 작은 아빠가 대답했다. “호위, 이제 네 차례야.” 그는 외발 자전거를 한 손으로 세우고 호위가 자전거에 올라타는 것을 도와주었다. “자 페달을 밟아,” 그가 말했다. 호위는 페달을 밟았다. 외발 자전거는 앞으로 움직였다.

집 안에서는 윌라 진이 그녀보다 큰 아코디언과 씨름하고 있었다. 아코디언은 어디 아픈 것처럼 신음소리를 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빠가 호위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 옆으로만 균형을 잡는 대신에 앞 뒤로 동시에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으면 돼.”

다소 상기되고 단호한 얼굴로, 호위는 다시 외발 자전거에 올라탔다. 호위가 외발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고 나면 아마 호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양 발 자전거를 자신에게 타게 해 줄 지도 모른다고 라모나는 생각했다. 라모나는 중고이지만 삼단 기어 변속이 되는 호위의 자전거를 탈 수 있길 간절히 바랐다. 호위는 뒤로 상체가 기울어졌고 작은 아빠가 팔로 지탱해 주었다. 아코디언은 껍껍거렸다. 라모나는 약간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느껴졌다.

“호바트, 조심해,” 호위의 할머니가 외쳤다. 윌라 진의 연주가 할머니의 외침 소리 위로 킁킁 소리를 내고 있었다.

라모나는 외발 자전거 배우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모나는 윌라 진과 아코디언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윌라 진은 마루 위에 아코디언을 내려놓고 낙타 안장 위에 앉아서 아코디언을 노려보았다. “너무 커 그리고 이걸로는 음악을 연주하지 못 할거야.”

“내가 해 볼게.” 라모나는 자신은 아코디언으로 음악을 연주 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아주 쉬워 보였다. 그녀는 양 쪽 끈에 손을 끼웠다. 불행히도 라모나가 생각나는 노래는 방금 작은 아빠가 불렀던 “라모나” 밖에 없었다. 그녀는 바람 통을 밀면서 버튼을 눌렀으나 아코디언은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만 냈다. 그녀는 바람 통을 밀었다 잡아당겼다 하면서 다른 건반을 눌러 보았다. 히-잉, 히-잉. 이건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라모나는 생각했다. “네 작은 아빠가 시간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연주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호위의 낙타 안장 위에 아코디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밖에서는 호위의 할머니가 계속 조심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호바트! 호위! 조심해!”

라모나와 율라 진은 창문 앞에 서서 호위가 자전거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작은 아빠는 호위를 보호하고 있었고 호위는 도로 앞으로 고꾸라지기 전에 몇 피트 정도 앞으로 겨우 나아갈 수 있었다. “내가 해냈어!” 그가 소리쳤다.

호위는 외발 자전거 타는 법을 곧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라모나는 생각했다. 그러면 라모나는 호위가 가지고 있던 양 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율라 진은 마치 잠시 쉬는 동안 아코디언 연주법을 다 익힌 사람처럼 다시 아코디언을 잡았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아코디언은 바로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 그녀는 말했다.

라모나는 창문에서 고개를 돌려 율라 진을 바라보았다. 율라 진은 아코디언 한 쪽 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끝에 한 쪽 발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나머지 한 쪽 끝을 그녀가 잡아 당길 수 있는 높이까지 잡아당겼다. 그때 라모나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 차렸고 그녀를 잡으려고 했다. 율라 진은 재빠르게 자신의 발을 줄에서 빼내고 아코디언을 돌려서 바로 세우기 위해 양 쪽 발을 마루에서 들어 올리다가 넘어졌다. 아코디언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처럼 긴 비명을 질렀다.

“율라 진!” 라모나는 소리쳤다. 겁에 질린 듯 또는 기쁜 듯한 끔찍한 비명 소리가 그녀의 귀를 울렸다. 율라 진은 환하게 웃으면서 벌떡 일어났다. 라모나가 봤을 때 아코디언은 다시는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아코디언의

아래쪽이 쪼개져서 아코디언은 영원히 침묵해야만 할 것이다. “네가 망가뜨렸어.” 라모나가 말했다. 하지만 라모나도 율라 진과 같은 나이였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관없어,” 율라 진이 말했다. “나는 연주를 했고 이제 더 이상 연주하고 싶지 않아.”

호위의 할머니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기 위해 갑자기 들어왔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그녀는 작은 아빠가 준 선물이 부서진 것을 보고 외쳤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라모나가 항의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비싼 악기를 망쳤어,” 호위의 할머니가 말했다. “라모나, 네가 언니잖아. 율라 진이 악기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했어야지,” 그녀는 그녀의 손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 짓을 하고도 미안하지도 않니?”

“네,” 율라 진이 말했다. “저건 오래되었고 멍청해요, 이상한 소리만 나요.”

“율라 진 네 방으로 올라 가,” 호위네 할머니가 명령했다. 호위네 할머니는 항상 율라 진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 율라 진을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워했었다. “나는 너에게 정말 화가 나는 구나, 작은 아빠가 집에 돌아온 기쁜 순간을 네가 망쳐버렸어.”

할머니는 율라 진이 한 행동에 대해 그녀를 꾸짖었다.

호위네 할머니는 라모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꼬맹이, 너는 네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거라.”

라모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한 할머니의 불공평한 처사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났다. 우리 엄마가 호위네 할머니에게 나를 돌봐 달라고 돈을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율라 진을 돌봐야 하지? 그리고 호바트 작은 아빠는 어떻게 율라 진이 클 때까지 사용하지도 못할 그런 멍청한 선물을 어린 꼬맹이에게 줄 수가 있지, 아니면 어른들은 선물에 대해서는 아주 멍청한 걸지도 몰

라. 하지만 라모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커서야 읽을 수 있는 책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컷을 때는 그 책이 너무 오랫동안 책장에 꽂혀 있어서 그 책에 계속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아코디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밖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호위가 외발 자전거 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라모나는 밖에서 외침과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 환호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불공평해, 라모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이 항상 삶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삶이 불공평 한 것은 공평하지 않았다.

라모나는 호위네 할머니가 사랑스럽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져온 낫쇠로 만든 그릇과 커피포트를 닦는 것을 보았다. 부엌 난로에서는 핑 핑 핑 요리가 다 되었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 때 갑자기 호위가 울음을 터트렸다. 호위는 한 쪽 무릎에서 피를 흘렸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외발 자전거를 쫓아갔다. 그 날 오후는 아주 불공평했고 지루했다.

“이런 무슨 일이야,” 호위의 할머니가 외쳤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자전거 때문에 다칠 줄 알았어.” 라모나는 윌라 진이 자신의 방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범, 할아범은 바보야.(This old man, he is dumb.)²⁾

룰~ 루 띵~ 라 (Knick-a-knack paddywhack)

개에게 전화기를 주고 (Give a dog a phone)

할아범은 구르면서 집으로 돌아왔네.” (This old man comes rolling home)

라모나는 미소를 지었다. 윌라 진은 이 노래의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틀림 없었다. 핑 핑 핑 타이머에서 소리가 났다. “호바트, 오븐을 끄고 파이를 꺼

2) 미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숫자 세는 것을 배울 때 부르는 노래이다. 원곡 가사는 다음과 같다.
(This old man, he plays one / He plays knick knack on my thumb / With a knick
knack paddy wack / Give a dog a bone / This old man comes rolling home)

내렴. 호위는 내가 돌볼게.” 호위의 할머니는 몹시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월라진은 거실로 따라 들어와서 자신의 낙타 안장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따라 나왔다. 라모나는 씩씩하긴 했지만 이 모든 장면이 텔레비전보다 더 흥미 진진 하다는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호위가 한 쪽 다리의 바지를 접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절뚝거리면서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풀이 죽은 채 소파에 앉았다. 라모나는 호위가 가여웠다.

“음~~~.” 호바트 작은 아빠는 음식 냄새를 들이 마셨다. “엄마의 사과 파이 냄새. 내가 해외에 있을 때 밤마다 꿈꿨던 냄새야.”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쪽하고 입을 맞추었다.

“엄마를 놀리면 못써.” 호위의 할머니는 내심 기뻐다. 네가 내 사과 파이를 매일 밤 꿈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네가 만든 것이 더 맛있잖아.”

작은 아빠는 라모나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다는 걸 눈치챘다. “호위의 여자친구, 무슨 일 있니?” 그가 물었다.

물론 라모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는 대답할 생각이 없었다. 작은 아빠는 다신 놀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호바트,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아코디언을 망가뜨리는 걸 앉아서 보기만 하는 어린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모나는 호위의 할머니가 대답을 바란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챘다. 라모나에게 창피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라모나는 번뜩 심상치 않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호위 할머니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라모나는 모든 어른들이 모든 아이들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런 오해는 예측 가능 했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선생님들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몇 어른들과 아이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어른이 아이를 싫어해서 창피를 주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잘못된 일이다. 라모나는 비저스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빨리 와서 자기편이 되어 줬으면 했다. 그러나 비저스는 호위네 할머니네 집에 늦게 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핑계 거리를 찾아냈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그의 어머니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라모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고요?” 라모나는 호위의 여자친구니까 아주 훌륭한 아이일 거예요. 그렇지, 호위?”

“아~ 작은 아빠~ 쫘~!” 호위는 카펫 위에 서서 작은 아빠를 노려보았다. 잘했어, 호위 라모나는 생각했다. 나도 너랑 생각이 같아.

“호위!” 호위의 할머니가 소리쳤다. “작은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돼.”

“상관없어요,” 호위가 말했다 “저는 무릎을 다쳤어요.”

“정말 너희들이 오늘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호위 할머니가 짜증을 냈다.

라모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어른들 때문이에요.* 라모나는 이렇게 말하는 대신 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절대, 절대, 절대. 그녀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시든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돌봐 주는 것이 싫었다.

“가여운 어머니,” 호바트 작은 아빠가 말했다. “사과 파이 한 조각 드세요.”

불쌍한 아이들. 라모나는 언젠가 누군가가 또는 자신이 아코디언 위에 앉아서 아코디언을 망가뜨려 버린다면 호위와 윌라 진에게는 안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럴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윌라 진처럼 장난을 치고 그것을 재미있어 하던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라모나는 그녀가 윌라 진의 나이 때에 보냈던 행복한 오후 한 때를 회상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걸리기 전까지 그녀 아버지의 버팀 쇠가 있는 주차장 벽에 구멍을 후벼 파곤 했었다.

2

라모나의 문제

아코디언 사건이 있던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라모나네 가족은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깊게 먼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로 나온 물고기의 가시를 어떻게 잘 발라낼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서는 가시가 있는 생선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고양이 피키 피키는 생선을 달라고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야옹 하고 울었다.

라모나는 생선이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기꺼이 피키 피키에게 자기 몫을 내어 주고 싶었다. 라모나는 다른 엄마들이 보통 그렇듯이 퀴비 부인도 라모나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연약하고 예민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바랐다. “라모나 새처럼 조금씩 먹는구나,” 그러나 퀴비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라모나가 생선을 싫어해서 불평한다고 해도 그냥 먹어라 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라모나는 새처럼 조금씩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기 전에 모든 가시를 발라내야만 했다. 라모나는 생선에 포크를 쿡 찔렀다. 그리고 가시들을 밀어내면서 걱정했다. 어떻게 다시는 호위의 할머니네 집에 절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그런 다음엔? 만약 라모나가 방과 후에 호위네 집에 가지 않으면 그녀의 엄마는 의사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아빠는 대학에 갈 수 없을 것이고 가족 모두는 라모나에 의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퀴비씨는 접시 가장자리에 생선 가시를 발라 놓았다 “호위네 돈 많은 부자나리는 아직 안 오셨니?” 그는 라모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말했다. “저리가, 사고뭉치.”

“오셨어요,” 라모나가 말했다. “그런데 그냥 수염 나고 청바지 입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부자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퀴비 씨가 말했다. “입은 옷으로만 판단하면 안돼.”

“괜찮은 사람이니?” 퀴비 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라모나가 말했다. “그 사람은 어린이를 놀리고 그걸 재미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아,” 비저스가 말했다. “내가 거기 갔을 때 이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는 누구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난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여드름이 세 개나 있어서 보기 흉하다고.” 비저스는 최근에 그녀의 얼굴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여드름 때문에 전용 비누로 하루에 두 번이나 얼굴을 문질러 씻고 초콜릿을 먹지 않았다.

“난 절대 방과 후에 거기 가지 않을 거야,” 라모나가 갑자기 말했다. “누가 머라고 하던 거기에 다신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집에 와서 계단에 앉아 벌벌 떨더라도 끔찍한 호위의 할머니가 날 돌봐주는 것이 싫어.” 분해서 흘리는 그녀의 눈물이 아직 손대지 않은 생선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라모나는 다시 한 번 화를 냈다.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누구도 날 거기 가게 할 수 없어. 호위의 할머니는 나를 싫어해.”

퀸비 씨는 그 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마음을 가다듬어 라모나, 그리고 저녁을 먹으렴.”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퀸비 씨는 침착하고 조용하게 말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봐, 라모나.”

그것은 라모나 기분을 더욱 안 좋게 만들었다. 라모나는 그녀의 아빠가 침착하고 조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처럼 아빠 역시 화가 나고 흥분하기를 원했다. 그녀의 엄마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라모나에게 티슈를 건네주었다. 라모나는 그녀의 눈가의 눈물을 닦고 휴지를 공처럼 말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호바트 작은 아빠의 선물과, 작은 아빠가 라모나를 놀리기 위해 불렀던 노래, 호위가 넘어져서 피를 흘린 일 그리고 윌라 진이 아코디언을 망가뜨린 일 전부를 이야기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 부분에서 웃었다. “이제 이웃들은 행복하겠구나,” 퀸비 씨가 말했다. “이제 이웃들은 소음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모나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라모나는 그녀의 집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라모나는 그녀가 속해 있는 부분을 빼고 호바트 작은 아빠의 방문으로 인한 재미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웃긴 소리였을 거야,” 퀴비 부인이 말했다.

“아주 훌륭한 소리였어요,” 라모나도 동의했다. “그 끔찍한 소음 때문에 내 귀가 아플 정도 였어 - 피키 피키, 간지러워 - 그런데 호위의 할머니는 내가 율라진을 돌보고 있지 않았다고 나를 혼냈어요, 그건 불공평해요. 그리고 오늘 호위의 할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절대 착하지 않아요. 게다가 항상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나를 혼내요. 거기에 다시 나를 보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쓴다 해도 난 듣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다신 거기에 가지 않을 거예요.*”

“라모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봤니,” 퀴비 부인이 말했다. “아마 호위의 할머니가 너나 그녀의 손녀 둘다 돌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라모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 또래의 여성은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랐어,” 퀴비 부인이 설명했다. “그것이 그분들이 아는 것 전부야. 그런데 지금은 아마도 다른 것이 하고 싶으시겠지.” 그녀는 사려 깊은 눈으로 라모나를 쳐다보았다. 생선 가시를 볼 때의 사려 깊음이 아닌 정말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의 그러한 눈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조금은 좋아할 수도 있어.” 라모나는 이제 화내는 대신에 부루통했다.

비저스가 말했다. “라모나가 맞아요. 호위의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 파멜라의 집이나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라모나 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물었다.

라모나는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른들에게 도움 받기를 원했다. 가끔 그녀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는 아빠를 변화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안돼요?” 그녀가 물었다. “집에 아무도 없어도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 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말썽을 부리지도 않지 - 피키 피키 내 무릎을 발톱으로 긁지마 - 라모나, 너는 내 딸이야.” 아빠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집에 혼자

있는 건 싫구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혼자 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 거지.” 비저스는 식탁을 치우면서 말했다.

“나는 텔레비전 안 볼 거야,” 라모나는 무모한 약속을 했다. 그녀는 그녀의 접시를 부엌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녀의 몫인 생선을 피키 피키의 접시로 옮겼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을 거야. 하늘에 대고 맹세해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죽거나 기름에 튀겨져도 좋아.”

“너무 멀리 가진 말아라,” 그녀의 아빠가 말했다. 라모나의 아빠가 교사가 되기 위해 교대에 다시 가기 전인 라모나가 기억하는 예전의 아빠처럼 말했다.

“내가 라모나를 돌볼 수 있어.” 비저스가 배 통조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일어났다. 라모나는 오트밀 쿠키를 담은 접시를 들고 언니를 따라갔다.

“많은 중학생들이 동생들을 돌봐.”

“난 디저트는 됐어,” 콤비 부인이 속삭였다.

“난 애기가 아니야.” 라모나는 왜 비저스가 기꺼이 파멜라의 집에 가는 걸 포기했는지 궁금했다. 파멜라는 텔레비전 세트, 휴대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파멜라는 인기도 많았다. 모든 중학생 소녀들이 그녀처럼 되기를 바랐다.

라모나는 빠르게 생각했다. 비저스는 가끔 어른처럼 행동하고 대장처럼 굴 때가 있다. 그리고 라모나와 비저스는 한 번 싸우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또 비저스는 고자질을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가끔 고자질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다. 물론 라모나도 고자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녀가 한 행동은 고자질과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으론 호위의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아들 호바트가 떠나고 나면 라모나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라모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호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도 생각해 보았다. 날이 화창할 때나 또는 비가 올 때나 그는 나에게 여동생을 떠넘기고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러 갔다. “비저스, 용돈 받을 거야?” 라모나가 따지듯 물었다.

침묵. “피키 피키 내려가,” 콤비 부인이 말했다. 라모나의 생선을 게걸스럽게

먹던 고양이는 더 먹고 싶어했다.

“글썸-” 비저스가 말했다. “나 용돈 안 받아도 돼.” 어쨌든 나도 호위의 할머니네 집에 가기 싫어. 호위의 할머니는 나를 절대 환영해주지 않아 그리고 집에서 항상 오래된 수프 냄새가 나.”

“호위의 할머니는 아들이 여기 있는 동안 그녀의 아들과 가능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실 거야.” 콤비 부인이 말했다. “할머니에게 일주일 정도 쉬시라고 해야겠다.” 그 방법이 할머니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라모나가 집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너희들이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야.”

“할머니는 내가 없어져서 오히려 좋아하실 거야.” 라모나의 가족이 라모나를 도와주자 라모나의 마음속에 있던 날 것 그대로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었다.

“너희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해,” 콤비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얌전하게 굴고, 싸우지 말고 절대 절대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면 안 돼. 약속 해.”

두 자매는 약속했다. “엄마, 지금 할머니에게 전화해주시면 안돼요?” 라모나는 할머니가 먼저 전화해서 라모나가 윌라 진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까봐 걱정이 되었다.

호위의 할머니는 콤비 부인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녀의 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뻐했다. “와-!” 라모나는 기뻐했다. 그녀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호위의 할머니네 집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비저스는 숙제를 하러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라모나는 언니를 따라가서 방문을 닫고 등을 기대었다. “왜 방과 후에 파멜라나 메리 제인의 집에 가지 않고 기꺼이 나랑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녀는 비저스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궁금증을 거들 수가 없었다.

“메리 제인은 항상 피아노를 연습해 그리고 나는 파멜라랑 얘기 안 해,” 비저스가 말했다.

“왜?” 라모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긴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안 한적은 없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비저스는 설명했다. “파멜라는 항상 그녀의 아빠는 진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 그리고 우리 아빠는 언제 빈둥대는 것을 그만두고 일을 하러 갈 건지를 물어. 그래서 더 이상 개네 집에 가기 싫어 그리고 개랑 말도 섞기 싫어.”

“흥 나쁜 파멜라 언니.” 라모나는 마음이 아픈 만큼 손톱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 언니한테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 할 권리는 없어. 나도 그 언니랑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베아트리에 이모가 말하는 걸 들었어,” 비저스가 계속 말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해고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아빠가 선생님이로 채용이 될 수도 있잖아?”

라모나는 모든 학교가 그녀의 아빠처럼 좋은 사람을 채용하길 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이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너는 아빠가 가우디 아라비아로 갈 거라고 생각해? 아빠가 일하는 냉동 식량 창고보다 그곳이 훨씬 따뜻하다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비저스가 정정했다. “아니.” 아빠는 그게 돈이 된다는 거 외에는 오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떤 줄 알아?” 비저스는 라모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 생각에 엄마는 일을 더 하시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엄마는 임신했거든.”

라모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축축하고 침 질질 흘리는 아이, 또 다른 가족. “엄마한테는 이미 우리가 있는데 왜 또 아이를 가지신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비저스가 말했다. “근데 임신했다는 건 거의 확실해.”

“왜?” 라모나가 그녀의 언니가 틀렸기를 희망하면서 물었다.

“베아트리에 이모가 항상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엄마한테 기분이 어떡냐고 물어 봤던 거 기억나?”

라모나가 기억을 떠올려보니 비저스가 맞았다.

“그리고 엄마는 더 이상 디저트를 먹지 않아,” 비저스가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지나치게 살찌지 않은 거야.”

“아마 엄마는 더 이상 살찌는 걸 원하지 않았겠지.”

라모나는 이 부분은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엄마는 항상 날씬해서 다른 엄마들처럼 살찌는 걸 걱정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감사절 때를 생각해봐, 엄마는 아침을 먹고 토했어.” 비저스는 또 다른 근거를 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모나가 비웃었다. “나는 수십 번 토했어, 그리고 민스파이³⁾는 항상 먹을 때마다 토할 거 같아.”

“근데 아기 가진 여자들도 보통 아침에 토를 해,” 비저스가 설명했다.

“진짜야?” 이걸 라모나에게 뉴스 감이었다. 그녀는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다.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돼?”

“엄마가 우리가 알길 원했다면, 우리에게 말했을 거야. 그리고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녀의 목소리에 의심이 스쳤다. “나는 내 말이 맞길 바라. 나는 아기들이 좋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엄마를 돕는 거야. 그게 사랑 받는 방법이야.”

라모나는 비저스가 책을 펴는 동안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다. 남동생일까 여동생일까? 그녀는 조금도 짐작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녀에게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생긴다면 어른들은 아이들이 마치 새로 생긴 동생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것을 이해 하지 못한다는 듯이 자신만의 방식대로 생각할 것이다. 라모나는 어른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동생이 생겼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어른들은 아이들 뒤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끼리 얘기하곤 한다.

“근데 엄마가 아이를 가진 것이 정말이라면, 아빠가 교사 자리를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비저스가 말했다. “이제 가. 나 공부해야 해.”

라모나는 엄마가 소파에 누워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 거실을 서성거렸다. 엄마는 아빠가 부엌 식탁에서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텔레비전 소리를 작

3) 민스파이(mince pie)는 건과일, 향신료, 스위트(suet)로 만든 민스미트(mincemeat)를 넣고 달콤한 맛을 낸 영국의 파이이다.

게 해서 보고 있었다. 라모나는 아빠가 공부할 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방해하기로 결심했다. 아빠는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걱정스런 눈으로 노트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빠의 팔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안녕,” 킴비씨는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가 라모나에 의해 현실 세계로 돌아온 뒤 라모나를 아는 척 했다.

“안녕,” 라모나도 인사를 했다. 그녀의 아빠는 재빨리 낙서하던 노트를 뒤집었다. 그러나 라모나는 이미 돈과 아이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낙서들은 아빠가 분명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빠에게는 이미 귀여운 딸이 있어요,” 라모나는 그녀의 아빠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의 아빠는 라모나의 머리에 그의 뺨을 문질렀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구나.”

그러면 아빠는 다른 딸은 필요 없죠, 그렇지요?” 라모나는 알아야만 했다.

“오, 글썄,” 킴비 씨가 말했다. “나는 딸들이 좋단다.”

3

착한 아이가 되자

월요일, 호위는 라모나가 스쿨버스에서 내려 호위의 집이 아닌 라모나네 집으로 가는 걸 봤을 때 곤혹스러웠다. “라모나 자 그럼,” 그가 말했다. “내일 보자.”

“작은 아빠랑 즐거운 시간 보내.” 라모나가 말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 클릭키텐 거리를 걸어갔다. 그녀는 숨겨진 키를 찾아 뒷문으로 들어갔다. 손을 씻고, 사과를 먹고 사과 심은 쓰레기통에 버렸다. 학생복은 벗고 평상복인 오래된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그녀는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호위네 집에 있을 때보다 열

마나 평화로운가. 호위네 집은 항상 멜로드라마가 켜져 있고 윌라 진은 라모나에게 같이 놀아달라고 소리 지르고 조르면서 사방을 뛰어 다녔다.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비저스는 조금 있다가 집으로 왔다. 두 자매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둘 다 착하게 굴기로 다짐했다. 비저스는 숙제를 하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가면서 사과를 하나 들고 갔다. 그 때 피키 피키가 지하실에서 꺼내달라고 울었다.

“라모나, 고양이 좀 꺼내줄래?”

평상시에 비저스는 항상 소리치곤 했었다. “고양이 우는 소리 안 들려? 고양이 좀 꺼내. 그럼 라모나도 소리 지르며 대답했다. 네가 꺼내. 고양이랑은 네가 더 친하잖아. 나는 고양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하지만 오늘은 지하실 문을 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알겠어, 비저스.”

피키 피키는 마치 누군가가 그를 놀라게 해주려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는 듯이 그의 밥그릇으로 재빠르게 달려갔다. 라모나는 책을 읽으러 소파로 돌아갔다. 그리고 피키 피키가 찾은 것은 먹다 남은 음식밖에 없었다. 고양이는 부엌을 지나 소파로 갔다. 그는 라모나 옆에 가기 위해 점프를 할 것처럼 엉덩이를 이리저리 쉴룩쉴룩 움직였다. 그러나 고양이 피키 피키의 나이로 점프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라모나는 항상 고양이에게 관심 받는 것이 좋았다. 라모나는 고양이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그는 몸을 말고 라모나 옆에 누워서 골골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는 점점 녹이 슬고 닳은 소리처럼 느껴졌다.

라모나의 엄마가 집에 왔을 때 그녀의 딸들이 아주 잘 하고 있어서 그녀는 너무 기뻐했다. 두 소녀는 아침 식사 이후로 엄마의 허리에 살이 붙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유심히 그녀의 허리를 살펴 보았다.

화요일 오후도 월요일과 같았다. 비저스는 라모나가 모르는 친구랑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 그 대화 내용은 누가 학교에 새로 온 남학생에게 말을 걸었는지, 어떤 아이의 티셔츠에 머라고 써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가 한 소년이 비저스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본 것을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비저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개가 날 쳐다봤다고 생각해?” 그리고 대화는 계속 되었다. 라모나에게는 재미없는 그 대화가 마침내 끝났을 때 비저스는 욕실로 가서 여드름 전용 비누로 얼굴을 문질렀다.

“내 착한 딸들,” 콤비 부인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말했다. 그녀의 허리는 전날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집에 오는 길에 저녁 식사를 대신 할 피자를 사 왔다. 피자는 라모나네 집안 형편에서는 사치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녀가 저녁 하기가 싫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요일에 라모나는 착한 소녀가 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은 너무 지루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호위가 자신의 양 발 자전거와 외발 자전거를 안장과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도로를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신이 났다. 그녀는 그가 도로 위에 두 개의 자전거를 놓혔을 때 더욱 행복함을 느꼈다. 라모나는 집 앞에서 호위를 만났다.

“라모나, 놀자.” 호위가 말했다. “작은 아빠가 외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우린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놀 수 있어.”

라모나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비저스,” 그녀가 소리쳤다. “호위랑 자전거 타러 나갔다 올게.”

“허락 먼저 받아야지,” 비저스가 말했다.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넌 나갈 수 없어.”

라모나는 비저스가 호위 앞에서 어른처럼 행동한다고 느껴졌다. “갑자기 왜 어른처럼 구는 거야?” 그녀가 따졌다.

“엄마와 아빠가 너에게 날 맡겼고, 너는 그것을 따라야만 해,” 비저스가 대답했다.

“언니는 지금 언니랑 언니 친구 메리제인이 소꿉놀이 할 때 내가 아기역할을 했던 때처럼 말하고 있어. 난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야.” 라모나는 더욱 더 강하게 따졌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호위와 같이 놀라고 했어.”

“소꿉놀이랑 비슷해, 네가 다치면 나에게 책임이 있어,” 비저스가 말했다.

“언니는 그냥 심술부리는 거야,” 라모나가 말했다. “이 피자 얼굴아.” 라모나가

문을 쿵 닫기 전에 본 언니의 얼굴은 마치 막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이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 라모나는 비저스의 구겨진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다.

호위는 외쳤다, “라모나, 나 봐봐!”

라모나는 호위가 외발 자전거에 올라 그것을 타고 모퉁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라모나는 언니의 표정을 보고 나니 당황스럽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녀는 비저스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왜?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저스를 호두 파이 얼굴이라고 수 십 번이나 놀렸었고 비저스는 그렇게까지 속상해 하지 않았다. 피자 얼굴이랑 머가 다른 거지? 그녀는 어제 밤 그들이 피자를 먹었던 것이 떠올라서 피자얼굴이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피자도 파이의 한 종류이다.

“잘했어, 호위,” 호위가 모퉁이를 두 번 이나 갔다 왔을 때 라모나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는 계속 비저스가 걱정이 되었지만 착한 소녀인척 의자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었다.

“이리 와서 내 양 발 자전거를 타,” 호위가 말했다. 우리가 저 블록을 돌아올 수 있는지 한 번해보자.”

자전거의 한 쪽 페달은 아래로 다른 쪽 페달은 위로 두는 것에 신경 쓰면서 라모나는 호위의 양 발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녀는 순조롭게 출발해서 언덕을 올라갔다. 그리고 균형을 잘 못 잡아서 흔들거리며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잘한다, 라모나,” 호위가 외발 자전거에 앉아서 말했다 그러곤 그녀를 앞서 갔다.

라모나는 호위 뒤에서 균형을 못 잡고 흔들거렸다. 그리고 그 때 그녀는 걱정이 되었다. 비저스가 엄마 아빠에게 머라고 말할까? 다시 호위 할머니네 집으로 가야 하면 어찌지?

라모나가 모퉁이를 돌 때에는 자전거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넘어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전거 페달을 더욱 빠르게 밟기 시작했다. 라모나는 정말로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 났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신났다.

라모나는 호위를 제치고 더욱 빠르게 달리기 위해 페달 위에 올라섰다. 라모나

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거나 다음 모퉁이를 돌아야 하는 것들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만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모퉁이를 돌다가 라모나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자전거는 그대로 라모나 위로 쓰러졌다.

라모나는 왼쪽 무릎과 팔꿈치를 다쳤다. 그녀는 기진 맥진 했다. 호위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라모나에게 달려가 자전거를 들어올렸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라모나는 스스로 일어섰다. “아무데도 부러지지 않았어,” 그녀가 딱딱한 목소리로 울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상처가 난 팔꿈치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리고 무릎 부분의 청바지가 피로 물들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자전거를 끌었다. 호위는 그녀가 걷는 속도에 발맞추어 외발 자전거를 끌었다.

“호위 또 놀러 와.” 라모나가 말했다. “넘어지더라도 자전거 타는 게 좋아.”

“알겠어 라모나.” 호위가 대답했다. “피를 다 닦는 게 좋을 거야.”

라모나는 거실 카펫에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뒷문으로 갔다. 뒷문은 잠겨있었고 그녀는 노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비저스가 문을 열었고 그녀의 동생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무시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라모나는 절뚝거리며 화장실로 갔다. 만약 비저스가 라모나에게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더라면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저스 나 넘어졌어. 와서 도와 줘.”

“난 네가 다치든 말든 신경 안 써, 이 끔찍한 괴물아,” 그녀의 언니가 대답했다. “끝 좋다. 더 이상 너랑 말 안 할거야. 내 얼굴이 피자처럼 빨강고 얼룩덜룩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은 들은 라모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부끄러웠으며 화가 났다. 그녀는 그녀의 언니의 기분을 일부러 상하게 만들었다; 비저스도 일부러 라모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심지어 라모나가 피를 흘려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속으로 기뻐했을 지도 모른다. 어른 흥내만 내는 비저스.

라모나는 혼자 무릎과 팔꿈치를 씻고 소독약을 뿌리고 밴드를 붙였다. 그리고 상처를 숨기기 위해 깨끗한 청바지와 긴 팔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피키 피키를 안아서 소파 위에 앉혔다. 그리고 옆에 앉아 책을 읽으며 다시 착한 라모나로 돌아갔다.

그러나 라모나는 책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언니가 기분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라모나는 기분 상하게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언짢았다. 두 자매는 서로를 이따금 놀리곤 했다. 비저스는 라모나의 아이스크림이 콘에서 똑똑 녹아서 라모나의 볼에 아이스크림이 묻으면 라모나를 칠칠 흘리는 고양이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절대 나쁜 뜻을 가진 별명으로는 부르지 않았다. 비저스는 그녀를 일부러 끔찍한 작은 괴물이라고 불렀다. 비저스가 엄마 아빠에게 둘이 싸운 것을 이야기 하면 어찌지? 그렇다면 라모나는 호위네 집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착한 소녀였던 라모나는 밥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저스가 밥을 먹기 전에 욕실로 얼굴을 씻으러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고양이가 피키 피키는 그녀가 자신에게 밥을 줄 것을 기대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비저스는 감자 네 개를 씻어서 굽기 위해 오븐 안에 놓았다. 그리고 고양이를 들어 올려 포옹하고 쓰다듬었다. “착한 우리 피키 피키,” 비저스가 말했다. 라모나는 언니가 고양이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분명 라모나는 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꼬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집에 돌아 오셨을 때 비저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라모나도 그렇게 행동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와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라모나는 엄마가 의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입는 하얀 유니폼이 조금 작은 듯하게 느껴졌다. 아마 옷이 줄어들었거나 지난밤에 먹은 피자 때문에 살이 찼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아니면 비저스가 한 말대로 임신 했을 지도 모른다.

가족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둘러앉았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그리고 전화기 가까이에 있던 콤비 부인은 전화를 받으러 갔다. 그녀는 대답했다. “오, 전 좋아

요,” 그녀가 말했다.

라모나는 비저스 표정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집중해서 엄마가 전화통화 하는 것을 엿들었다.

라모나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네...네, 물론이예요. 네 좋은 생각이예요. . . 아 니예요, 괜찮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 . 재미있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뭐가 재미있는데?” 라모나와 비저스가 동시에 물었다.

“음- 머랄까,” 콤비 부인이 그녀의 남편에게 몰래 눈짓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잘 기억이 안나.”

“아빠한테 윙크했어,” 라모나는 마치 윙크가 사악한 행동인 것처럼 엄마를 고 자질했다.

“엄마! 거짓말이지!” 비저스가 격분해서 외쳤다. “엄마는 전부 알고 있어.”

“사람들 앞에서 재미있는 것에 대해 통화를 하고 그 걸 말해주지 않는 것은 나 뿐 거야.” 라모나는 비저스 만큼 궁금해 죽을 꺼 같았다.

“누구 전화야?” 콤비 씨가 물었다.

하! 엄마는 아빠에게 거짓말 하지 못하니깐 이제 엄마는 다 말해 줄 수밖에 없 을 거야라고 라모나는 생각했다.

“호위의 엄마야,” 라모나 엄마가 말했다.

“그냥 이것저것 물어봤어.”

“오 그래~?” 모든 딸 가진 아빠가 하는 반응을 보였다.

“생일파티랑 관련된 거 예요?” 라모나가 물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엄마가 재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모나, 절대 아니야.” 콤비 부인이 말했다. “밥이나 먹어.”

“그거 맞죠?” 라모나가 다시 물었다.

“생일파티 때문에 전화 온 거 아니야,” 콤비 부인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너랑 관련된 것도 아니야.”

라모나는 엄마가 계속 거짓말을 해주길 바랐다. 그녀는 그녀와 관련된 재미있

는 일이 일어나길 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두 자매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면 알아챘어도 말하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후에, 퀴비 부인은 조금 피곤해서 침대에서 잠시 책을 읽어야겠다고 말했다. 두 자매는 매우 중요한 김새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애써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설거지 할게,” 퀴비 씨가 자처 했다. 두 자매는 식탁을 치웠다. “설거지 하고 나서 나는 내일 있을 교생실습을 준비할 거야.”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알아두었으면 하는 게 있어. 너희들은 엄마가 걱정할 만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알겠니?”

두 소녀는 서로의 눈을 피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의 엄한 목소리로 봤을 때 아빠는 그들이 싸운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저스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라모나는 언니를 따라 가서 사과하고 싶었다. 피자 얼굴이라는 말이 비저스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그리고 비저스는 그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고, 엄마가 임신을 했다면 언제 임신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라모나는 특히 자신이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고 라모나를 끔찍한 작은 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사과 해 본 적이 없었다. 작은 괴물은 넘어가 줄 수 있지만 끔찍한 작은 괴물은 도저히 넘어가 줄 수가 없었다.

4

고양이 피키 피키

이상하게도, 라모나의 마음이 무거울 때면 발걸음도 무거워졌다. 그녀는 통학

버스를 타러 터덜터덜 걸어갔다. 학교 복도에서도 터덜터덜 걸었다. 그리고 방과 후 집으로 오는 길엔 쿵쿵쿵쿵 걸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텔레비전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틀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호위 할머니가 보던 드라마를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였고 호위의 작은 아버지처럼 없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짓을 한 사람을 고소했다; 라모나는 정확히 그 내용을 이해 할 수 없었으나 정말 지루하고, 지루하고, 지루했다.

비저스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방에 책을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아마 재킷을 침대에 벗어 던지는 대신에 옷걸이에 걸 것이다. 그녀는 지하로 갔다. 그녀의 뒤에서 라모나에게 잠자코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피키 피키를 밖에 꺼내놓지 않았어. 라모나는 그녀가 고양이를 꺼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이다.

비저스가 문을 열었을 때 밥을 먹으러 나오는 고양이는 없었다. 비저스는 지하실 불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다.

라모나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라모나!” 비저스가 외쳤다. “빨리 와봐!”

드디어! 비저스가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느껴졌다. 라모나는 겁에 질려 지하실로 달려갔다. 마지막 두 개의 계단은 한번에 뛰어서 내려 갔다. 그녀의 언니는 라모나를 필요로 했다.

비저스는 가슴 가까이에서 두 손을 모으고 피키피키 바구니 옆에 서 있었다. “죽었어.” 비저스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목소리로 움직이지 않는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키 피키는 죽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모나가 물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살아 있었어.” 두 소녀는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은 잊어 버렸거나 적어도 한 쪽으로 잠시 밀어 두었다.

“그는,” 비저스가 말했다.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면 왜 죽었는지 나도 몰라. 나는 고양이를 안아 올리려고 했어. 그랬더니 고양이가 축 늘어지고 차가

왔어. 어서 가서 만져 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라모나는 용기를 내서 생기가 없는 피키 피키를 손가락으로 소심하게 건드려 보았다. 고양이는 차가웠고 축 쳐진 털 멍치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해?” 제정신이 아닌 비저스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라모나가 제안했다.

“그런데 아빠가 엄마 걱정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비저스가 라모나를 상기시켰다. 두 자매는 서로를 무력하게 쳐다보았다. “우리가 피키 피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하실에서 죽은 고양이를 발견한다면 엄마는 많이 슬플 거야.”

“맞아,” 라모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분명 그럴 거야, 특히 저녁시간에.” 두 소녀는 그들의 애완동물을 슬프게 쳐다보았다. “우리가 물어야 할 거 같아,” 라모나가 말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자.”

“서둘러야 해,” 비저스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을 만들 수 있을 지 모르겠어.” 그녀는 아빠의 무거운 삽을 벽에서 꺼냈다. 삽은 두 개의 못 사이에 걸려 있었다. 삽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어서 와, 묻을 만한 장소 찾는 것을 도와줘.”

라모나는 언니를 서둘러 따라갔다. 라모나는 피키 피키 고양이 귀신과 둘만 있게 되는 게 무섭게 느껴졌다. 그런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지만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다.

두 소녀는 뒷마당의 모퉁이에 무덤 자리를 찾기 위해 젖은 풀이 있는 곳을 헤치며 걸어갔다. 두 소녀의 아빠가 너무 커버린 오래된 월계수 관목을 파 헤쳐던 곳이기도 했다. 비저스는 땅에 삽을 푹 찔러 넣었다. 그리고 더욱 깊이 파기 위해 삽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흙을 파내어 옆에 쌓았다. “고양이를 어디에 넣어서 묻지?” 그녀가 다시 땅을 파면서 물었다.

“내가 상자를 찾아볼게.” 이제 비저스는 라모나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라모나는 그녀가 아는 누군가가 첫 번째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위축되었지만 자신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거기에 죽은 새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양이를 묻는 것은 약간 흥미로웠다. 라모나는 지하실에서 판지로 만들어진 상자 하나를 찾아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인형 베개 하나와 담요 두 장을 찾아냈다. 상자에 담요 한 장을 깔고 한 쪽 끝에 베개를 놓았다. 그녀는 지하실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자신을 재촉했지만 자신은 생명력을 잃은 피키피키를 만지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은 비저스에게 맡겨야만 했다.

바깥 뒤뜰에서는 비저스가 삽과 씨름하면서 헐떡이고 있었다. “내가 해 볼게,” 그녀가 제안했다, 그러나 삽은 라모나에게 너무 길어서 라모나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나는 모종삽으로 할 게,” 그녀는 말했다. 두 소녀는 함께 땅을 팠다. 라모나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모종삽으로 땅을 파다가 손으로 팠다. 그들은 고양이를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비저스 피키피키를 박스로 옮겨줄래?” 라모나가 물었다. “나는 무서운 건 아니지만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지하실로 돌아가서 비저스는 피키피키를 들어 올려 박스 안에 넣었다. 그리고 고양이의 머리를 베개 위에 누였다. 라모나는 인형 담요를 접어서 고양이에 덮어 주었다. 그리고 함께 뚜껑을 덮었다.

비저스는 그 상자를 무덤을 만든 장소로 가지고 갔다. “그냥 고양이를 묻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장례식 날 모든 사람이 수근 거린 것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 꽃이 많이 있었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했어. 너는 그때 아기였고.”

라모나는 장례식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무덤 주변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 그녀가 말했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울면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멀리 데리고 갔고 그녀는 그 때까지 울었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비저스는 고양이를 위해 기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말했다.

라모나는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제 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비저스가 끼어들었다. “네가 죽어서 묻히는 게 아니

잠아.”

“아, 알겠어.” 라모나는 다시 시작했다. “이제 피키피키는 잠이 듭니다. 주님, 고양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그의 밤과 함께하고 아침에는 빛으로 그를 깨웁니다. 아멘.” 그녀가 기도를 끝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자 이제 끝났다.”

비저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근데 피키 피키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어. 그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거야. 그는 죽었어.”

하지만 라모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고양이는 아홉 개의 목숨이 있어, 그러니 내일 누군가의 새끼 고양이로 어디에선가 다시 깨어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비저스가 말했다. “근데 꽤 합리적인 생각이야. 나는 새 주인이 그에게 멜론 껍질을 줬으면 좋겠어. 피키 피키는 멜론 껍질을 좋아했거든.” 그녀는 샵을 들어 올려 무덤을 흙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위한 꽃이 필요해, 근데 하나도 없어.”

“나는 고양이의 몇 번째 삶이랑 우리가 함께 했는지 궁금해.” 라모나가 축축한 갈색 잎들을 모아 무덤 위에 뿌리면서 말했다. 두 소녀들은 피키 피키의 관이 있는 작은 언덕을 슬픈 눈으로 바라 보았다. “착한 고양이였어,” 라모나가 말했다, “비록 피키피키는 내가 어렸을 때 날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나는 피키 피키가 아기 고양이였을 때 커튼에 올라가던 게 아주 조금 생각나.” 비저스가 말했다.

“고양이를 위한 묘비를 만들어야겠어.” 슬픈 기억을 공유하고 나니, 라모나는 그녀의 언니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고양이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저스-” 그녀가 침을 한번 삼키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안해, 어제 내가 언니를 그렇게 부른 거 - 그리고 난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야기 한 게 아니야.” 그녀는 어떻게 파이 얼굴이 피자 얼굴이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나는 언니 기분을 상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다신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비저스가 한 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 엄마는 내가 크면 피부 문제는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나는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손 위에 물집이 생겨서 먼가를 붙이는 게 좋겠어.”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라모나는 어쩐지 마음이 가볍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라모나와 그녀의 언니는 서로 사과하고 서로를 용서했다. “우리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았어,” 라모나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지하실에서 자투리 목재 중에 짧은 것을 고른 후 지하실을 급하게 빠져 나왔다.

그 동안 비저스는 그녀의 진흙 묻은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그 위에 소독약을 뿌렸다. 물집 위에 밴드도 붙였다. 그리고 남은 목재로 만든 묘비를 세우고 크레용으로 묘비명을 썼다.

묘비명 아래에는 라모나가 노란 고양이를 그려 넣었다.

“그렇지만 엄마랑 아빠에게 말씀 드려야 해,” 비저스가 말했다. “부모님도 피키 피키를 그리워하실 거야.”

“엄마를 슬프게 만들면 어떡하지?” 라모나가 물었다.

비저스는 확신 없이 말했다. “글쎄- 우리가 고양이를 묻은 것이 지하실에서 죽은 피키 피키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덜 슬플 거야.” 비저스는 손 위에 붙인 밴드를 다시 고쳐 붙였다. “너는 옷 먼저 갈아입어,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진짜 속상해 할 거야.” 그리고 손톱 밑도 솔로 잘 닦아.”

라모나가 옷을 갈아입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콤비 씨가 부엌 조리대 위에 장 봐온 음식을 올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어린 딸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라모나, 물을 넣고 인스턴트 음식을 넣으렴. 비누를 넣는 것도 좋겠구나.”

라모나 엄마는 먼지로 뒤덮인 라모나가 익숙했기 때문에 “고양이 캔 싸게 파는 곳을 발견했어.” 이 말만 했다.

라모나는 고통스런 눈빛을 언니와 교환했다. 그리고 손도 씻고 옷도 갈아입으러 방으로 갔다. 고양이 줄 음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돈 낭비인가. 라모나가 식탁으로 돌아 왔을 때 두 자매는 다시 슬픈 눈빛을 교환했다. 비저스는 밴드에 물

이 들어가지 않게 손가락 끝으로 양상추를 씻었다.

“비저스 네 손 왜 그러니?” 라모나 엄마가 당근 한 더미를 조리대에 올려 놓으며 물었다. “너 혼자 다친 거야?”

“별거 아니에요,” 비저스가 말했다.

“내가 양상추 씻을 게,” 콤비 씨는 비저스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비저스의 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많이 다쳤구나,” 그가 말했다. “머 하다가 손에 물집이 생긴 거니?”

비저스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야 하는 표정으로 라모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라모나는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부모님들은 언젠가는 알아야만 했다. “언니는 뒷마당에서 구덩이를 파다가 손에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그녀는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가장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작은 무덤이요. 우리는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그 사실을 알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신을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은근히 즐겼다.

콤비 씨는 가장 먼저 그 당혹스런 감정에서 빠져 나왔다. 그리고 웬일인지 즐거워 보였다. “비저스의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누구를, 내가 물어도 된다면, 또는 무엇을 묻기 위해 땅을 판 거니?”

라모나는 아빠가 그들이 어렸을 때 죽은 새를 위해서 팠던 작은 무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것은 그때보다 더 슬픈 일이라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피키 피키를 묻었어요. 그는 오늘 죽었어요.”

부모님의 놀랍고 즐거워 보이던 표정은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라모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녀는 두렵기 시작했다. 아마 그녀가 결국 엄마를 속상하게 만든 것이다.

“하필, 가여운 내 새끼들-” 라모나 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했다. “너희들이 고양이를 묻었구나,”

“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니?” 아빠가 물었다. “내가 물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빠가 엄마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비저스가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엄마가 집에 와서 죽은 피키 피키를 발견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린 좋은 무덤을 만들어서 나뭇잎으로 덮어 주고 또 묘비도 만들었어요,” 라모나가 말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누군가가 죽은 남편의 부인을 데리고 가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도 했어요.”

퀸비 부인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다. “이렇게 착한 딸을 가진 나는 정말 운 좋은 엄마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가 말했다. “다음 번에도 이런 행운이 또 찾아 왔으면 좋겠구나.”

두 자매는 그녀의 엄마의 허리를 응시했다. 그녀의 유니폼은 타이트했다. 그것은 그들의 상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럼 진짜였어!” 비저스가 흥분과 기쁨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아이를 가졌어.” 그녀는 그 사실을 의심했었다. 라모나는 엄마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마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다.

“엄마는 언제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비저스가 물었다.

“7월에,” 엄마가 고백하듯 이야기했다.

“아니지,” 아빠가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아이를 만날 거야. 나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거고.”

“아빠는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잖아요,” 라모나가 아빠에게 말했다.

“그래 내가 그랬지,” 아빠가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딸이 아닌 세 명의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 너희들만 집에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퀸비 부인이 말했다.

“와우~” 라모나가 외쳤다. “호위네 집에 안가도 된다!” 동시에 라모나는 생각했

다. 세 번 째 아이? 그녀의 마음엔 신나는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의 깊숙한 내면에서는 가족의 막내로써 모든 관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비밀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첫 째도, 막내도 아닌 중간이 될 것이다. 그녀는 다른 고양이 키우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

그것

엄마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비저스와 라모나는 집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 서로에게 사과하고 피키 피키를 위해 함께 무덤을 만드는 과정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모나의 부모님은 두 딸에게 방과 후에 더 이상 호위네 집에 가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라모나는 삶이란 참 따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하고 추웠다. 하지만 눈이 올 정도로 춥진 않았다. 그녀는 치키타 브랜드의 바나나 스티커를 이마에 붙이고 학교에 갔다. 베아트리체 이모가 맡고 있는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바나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새로 생긴 취미인양 이마에 스티커를 붙였다. 라모나의 이모는 모두 바나나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서 가끔 사람이 아니라 바나나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라모나네 반 학생들은 “스티커는 왜 붙인 거야?” 또는 “바보 같아.” 라고 말했다.

그러면 라모나는 말했다, “우리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반에서 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모나는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현관에는 유모차가 있고, 거실에는 안전 울타리가, 부엌에는 아기용 의자와 작은 옷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발 밑에는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있었고 비스킷 부스러기들이 의자에 떨

어져 있었다. 물론 라모나도 친구들이 아기 소식을 듣고 흥미로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비아트리체 이모는 거의 매일 저녁에 전화해서 퀴비 부인이 괜찮은지 확인했다. 성인 여자들의 대화는 항상 웃음꽃을 피웠다. 그것은 아이를 갖는 것이 왜 재미있는 일인지 알아내는 데 실패한 라모나와 비저서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엄마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이 알 수 없는 대화에서 엄마가 왜 웃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비아트리체 이모가 너무 바쁘다는 것과 이모는 거의 매주 스키를 타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키 시즌은 곧 끝날 것이다. 라모나의 엄마가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무슨 일이야, 비아트리체!” “믿을 수 없어!” “마이클이 머라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두 딸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게.”

비저스와 라모나는 대화가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달려들었다. “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이 짐작할 수 있어서 안돼,”엄마가 대답했다.

“엄마-아!” 라모나가 항의했다. “엄마 나빠요.”

“맞아, 짜증나,” 비저스가 맞장구를 쳤다.

“나 말이야?” 라모나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나빠? 짜증나?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마이클이 비아트리체 이모에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비저스가 로맨틱한 이야기를 바라면서 물었다.

“그런 얘기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라모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엄마, 제발 말해 주세요! 엄마도 점점 호위의 작은 아빠처럼 아이들에게 장난치는 못된 어른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호위네 작은 아빠를 닮는 일은 절대 없어,” 라모나 엄마가 계속 놀리면서 말했다. “나는 계속 내 행동을 고치도록 노력할 거니까.”

라모나는 그녀의 엄마에게 간간하게 굴었다. “엄마는 계속 우리를 놀리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책 말고 미스터리 한 것은 싫어요.”

“킴비 씨는 부엌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 소리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 얼굴을 찌푸렸다. 대학에서 곧 끔찍한 중간고사가 있어서 공부를 해야만 했다. 그는 시험 때문에 걱정이 되고 긴장 되었다. 두 딸은 아빠가 평소보다 더 심한 농담을 한다고 느껴졌다. 아빠는 먼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농담을 하곤 했는데 라모나가 TV를 보며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나만 빼고 모두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그러나 킴비 씨가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한 자격시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기 몇 주 전인 6월 중순쯤이면 끝날 것이다. 만약 아빠가 포틀랜드에서 적어도 교외지역에서라도 9월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여름 동안 슝라이트 마켓 중 한군데에서 휴가 간 계산원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라모나 엄마는 아이를 낳기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라모나는 엄마가 없는 집은 항상 텅 빈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이 좋았다.

비저스와 라모나는 **그것이** 남자 아이인지 아니면 여자 아이인지 알고 싶었다. 라모나는 남자 아이였으면 했다. 비저스는 여자 아이 이길 바랐다. 부모님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두 딸은 다른 문제를 걱정했다. 누구의 방을 **그것**과 함께 써야 하지? 엄마가 **그것**을 돌보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집에 있을 수 있을 수 있지? 라모나는 엄마가 계속 집에 있기를 원했다. 아이 돌보는 일을 많이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 있길 원했다. 그러면 라모나 엄마는 라모나의 치마와 바지의 주름을 펴 줄 시간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쿠키를 구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비저스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 했다. 킴비 부인은 말했다. 아빠가 일자리를 찾고 아기가 조금 자라면 대학에서 야간 과정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럼 엄마가 공부하는 동안 내가 **그것**을 돌볼게.” 비저스가 말했다.

“**그것**이라고 그만 부르자,” 킴비 씨가 말했다. “내 자식 중 그 누구도 **그것**이라고 불릴 수는 없지. 생각해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얼마나 웃기겠니. 그리고 ‘애가 **그것**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너희의 새 형제나 자매를 소개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봐. 그리고 누군가가 브래드 푸딩⁴⁾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해 난 **그것이 싫어,**’라고 말할 때 마다 기분이 상할 지도 몰라.”

모두 아기에게 진짜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만약 남자라면 로벌트 퀴비, 주니어? 라모나 엄마는 도로시라고 불리는 것이 싫으므로 자기 이름을 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라모나는 아스톤 말틴이 남자 아이 이름으로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모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었고 듣기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비저스는 개리나 벨트가 남자 아이 이름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자 아이 이름으로는 에이프렐이(4월이라는 의미가 있음)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7월에 태어난다고 해도 줄라이로 이름 지을 수는 없다. 줄라이는 사람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 때 라모나의 엄마는 약국에서 팜플렛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A로 시작하는 아기 이름과 이름의 의미가 적혀 있었다. 라모나는 즉시 자기 이름을 찾아보았다. 라모나는 “현명한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라모나는 정말 그 의미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력자라는 의미가 기저귀를 갈거나 그런 비슷한 일을 돕는 것이 아니기를 희망했다.

비저스는 다른 한편으로,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의 의미가 “천국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주 기뻐했다. “휘~!”그녀는 거실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며 천사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이 두 팔을 파닥파닥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그녀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그녀를 모든 것에 대해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모나와 그녀의 언니는 함께 팜플릿을 들여다보았다.

대부분의 이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필버트의 의미는 “최고의,” 그리고 성인 퀴비와 붙었을 때 발음도 괜찮았다. 그러나 학교에서 남자 아이들이 그를 팔레트라고 부르면서 놀릴 것이다.

비저스는 아벨라르 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로맨틱한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모나는 학교의 모든 사람이 그를

4) 브래드 푸딩 : 우유, 양파, 설탕, 바닐라와 향신료에 적신 빵 조각에 과일과 땅콩을 첨가하여 만든 디저트.

“라드⁵⁾.” 라고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저스는 라모나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 “로맨틱한 사이렌,” 의미를 가진 로렐라이가 여자 아이 이름으로 예쁘다고 생각했다. 라모나는 로렐라이 이름을 듣고 노래를 불렀다. “로렐라이어, 로렐라이어, 콩지에 불이 붙었어.”

라모나는 그웬돌리도 여자 아이 이름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공평.”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여동생이 생긴다면 항상 공평하게 같이 놀 수 있기를 바랐다.

퀸비씨는 굉장히 화려한 이름들을 제안했다. - 알폰소 호라시오, 클라린다 헵시바, 또는 쿠엔틴 퀸시 퀸비. 두 딸들은 아빠가 하는 말을 못 들은 척 했다. 아빠는 지금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쌍둥이면 어찌지?” 라모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팜플렛을 다시 한번 보았다. 폴 그리고 폴린? 보리스 그리고 도리스? 제랄드 그리고 제랄다인?

“쌍둥이 여자아이들 이거나 남자아이들일 수 있어,” 비저스는 이 점을 지적했다.

“애비 와 배비,” 라모나의 아빠가 말했다. “피터와 모스퀴터.”

“아빠 이름이 너무 바보 같잖아요.” 라모나는 아빠의 농담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 때면 아주 냉정했다.

퀸비 부인은 제인이나 존과 같은 흔한 이름이 어떠냐고 물었다. 라모나와 비저스는 흔한 이름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독특한 이름이 더욱 매력적이게 느껴졌다. 그들은 호바트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영리한,” 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그들은 아기 이름을 호위의 작은 아빠의 이름을 따서 지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마침내 아기 이름은 엘지로 정해졌다. 퀸비 부인은 평소에 입던 옷이 너무 작아져서 이젠 임신부 복을 입어야 했다. 퀸비씨는 이름이 정해지자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5) Lard(라드) : 돼지비계를 정제하여 하얗게 굳힌 것이라는 의미가 있음. 아벨라르라는 이름과 발음이 비슷하여 라드(돼지비계)라고 부르면서 놀린다는 의미이다.

“앨지가 걸어간다.(“Algie went out walking.)⁶⁾

앨지는 곰을 만났다.(Algie met a bear.)

곰은 뚱뚱했다.(The bear was bulgy.)

뚱뚱한 것은 앨지다.”(ThebulgewasAlgie.)”

퀸비 부인은 말했다, “아이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 그러면서도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앨지로 아기 이름을 짓기로 결정 했다. 라모나와 언니 비저스는, 앨지가 알게르논을 줄인 이름이라는 것을 들고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니 “용감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우리는 아기 이름을 알게르논으로 지을 수 없어,” 비저스가 말했다. “모두가 학교에서 놀릴 거야. 유행이 지난 책에서 빼고 아무도 알게르논이라고 짓지 않아.”

이름 짓기 후에, 비저스와 퀸비 부인은 아기 옷을 판매하는 곳을 찾아보았다. 집에는 라모나가 쓰던 기저귀, 비저스가 어렸을 때 쓰던 용품, 오래 전에 사용해서 먼지가 붙은 옷 밖에 없었다. 아기 용품을 새로 사는 것이 라모나를 안심시켰다. 라모나는 기저귀를 찾던 때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일회용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 그녀가 엄마에게 이야기 했다.

“너무 비싸,” 퀸비 부인이 말했다. 퀸비 가족이 필요한 모든 것은 너무 비싸게 느껴졌다. 아직 퀸비씨의 면접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아마 나도 부자나리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야 하나 봐, 밤낮으로 일해서 세금과 주택 융자금도 낼 정도로 많이 버는 거야, 그리고 수리비로 모든 비용을 다 갚아 먹을 차도 사고,” 그가 신중하게 말했다. 이번에도 두 딸들은 아빠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밥, 제발 정신 차려요,” 퀸비 부인이 말했다. “당신은 엔지니어 기술도 없잖아요.” 퀸비 부인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간단한 운동을 해야 했으므로 저

6) Algie(앨지)라는 이름은 bulgy(불룩한)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 따라서 동음이의어를 이용해서 말장난을 한 것이다.

녁 산책을 하러 나갔다.

라모나는 엄마와 둘만 이야기 하고 싶어서 따라 나가기로 결심했다. 새싹이 움트고 있는 나무 밑을 걸을 때, 그녀는 말했다. “엘지가 태어나면, 나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니에요.”

“그래,” 엄마가 동의했다. “대신 너는 둘째이기 때문에 엄마의 심장 한 가운데에 있을 거야.” 그리고 엘지가 태어나면 엄마는 집에 있게 될 거고 더 많은 시간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아빠는 그 때까지 교사직을 찾을 거고.”

라모나는 엄마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라모나가 계속 걱정하던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걸었다. “엘지가 엄마를 아프게 해?”

퀸비 부인은 라모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아기는 엄마를 아프게 하지 않아, 그러나 가끔 발로 차긴 해.” 그녀는 라모나의 손을 엘지가 있는 배 위에 올려 놓았다. 라모나는 엘지가 발차기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기의 발차기는 너무 작아서 먼가 꿈틀대는 것 같았다. 라모나는 그 작은 발차기의 움직임에 놀라서 집에 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퀸비 씨는 냉동 창고에서 밤낮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보여서 두 딸들은 아빠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그들의 아빠를 원하는 학교가 있어야만 했다. 부모님이 불행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었다. 부모님이 불행하면 온 세상이 잘못 된 것 같이 보였다.

라모나와 비저스는 우울해서 상상 속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오리건 주에는 비가 온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하나가 배달되었다. 퀸비 씨에게 한 학교에서 교사 직을 제안 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담당해야 했고 위치는 오리건 주 동남 쪽에 있었다.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에 있는 학교였다. 비저스는 지도를 찾기 위해 차로 달려갔다. “수십 마일 떨어져 있어,” 그녀는 지도에서 그 마을을 찾아내었다. “이 마을은 다 멀어. 심지어 빨간 선이나 검정색 선 위에 있지도 않아, 거의 아이다호랑 가까워.”

“거기에 머가 있는대?”

퀸비 부인이 궁금해 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거의 평생을 오리건 주에서만 살았다. 한 번도 오리건 주의 경계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내 생각엔 세이지브러쉬가 있는 곳이야.” 퀸비 씨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향나무, 용암 석. 나도 모르겠다.”

“양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비저스는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도 별로 신나 보이지 않았다.

“포틀랜드 공립학교 만세.” 퀸비 씨의 만세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양들은 귀여워,” 라모나는 아빠가 받은 제안에 대해 아빠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우리 집은 어찌지,” 퀸비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아무도 이사 갈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피키 피키의 무덤도 있어.” 라모나는 가장 슬픈 표정을 짓는 척 했다. “우리는 고양이의 작은 무덤을 두고 가야 할지도 몰라.”

“내가 만약 혼자라면,” 퀸비 씨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했다. “1년이나 2년 정도는 교실이 하나 밖에 없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괜찮았을 거 같아.”

하지만 아빠에겐 우리가 있어, 라모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호위와 학교 친구들을 떠나고 싶지 않아. 베아트리체 이모와 친절한 이웃들도.

“꼭 로라 잉걸스 와일더 같다, “양만 있으면.”

“밥-” 퀸비 부인은 망설였다. “만약 당신이 거기 가길 원하면, 우리는 집을 빌릴 면 되요. 당신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작은 마을도 두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지도 몰라요.”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오고, 그녀의 방에는 건방진 아이들이 그녀의 방 벽에 크레용으로 낙서를 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라모나는 주먹을 꼭 쥐고 간절하게 생각했다. 아빠, 제발, 싫다고 하세요.

퀸비 씨는 볼펜 끝을 치아에 대고 툭툭 두드리며 생각했다. 가족들은 각자 아빠의 선택이 가져 올 변화될 삶을 생각하면서 아빠의 대답을 기다렸다. “고속도

로가 없어," 아빠는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입 밖으로 꺼내었다.. "파란 하늘, 탁 트인 공간."

"여기에도 파란 하늘은 있어요," 라모나가 말했다. "비만 안 오면."

"큰 도서관도 없고," 비저스가 말했다. "아마 아무도 도서관에 가지 않을 걸."

퀸비 부인은 그녀의 남편 이마에 뽀뽀를 했다. "시간을 가지고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때요?" 첫 번째 제안을 받았을 뿐이에요, 또 다른 제안이 올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퀸비 씨가 말했다, "근데 나는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해, 그리고 곧." 그는 앨지가 있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빠," 라모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빠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 아라비안나이트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앨지도 남겨놓고 떠날 수는 없지." 퀸비 씨가 라모나를 포옹했다. "어쨌든, 난 낙타가 침을 빨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호위의 작은 아빠인 호바트가 하던 것처럼," 라모나가 말했다.

가족 전체는 퀸비 씨가 그 학교에 가길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다소 기분이 괜찮아 졌다.

6

놀라운 일

호위는 다시 자신의 침대에서 혼자 자고 매일 방과 후에 라모나네 집에 외발 자전거와 자신의 양 발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놀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작은 아빠인 호바트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갔으면 하고 바라기 시작했다. 비저스는 라모나가 블록 주변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했다.

라모나는 양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호위가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오리곤 남쪽으로 이사 갈지도 몰라."

라모나가 털어냈다.

“야, 좋겠다.” 호위가 말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에게 한 마리 보내 줄 수도 있겠다.”

라모나는 기분이 상했다. 호위는 자신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기르게 되더라도 너에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모나가 호위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호위는 라모나가 왜 짜증을 내는지 이해했다. “네가 보고 싶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냥 나는 네가 이사를 가야 하고 말을 기르는 것이 쉽다면 한 마리 보내 달라는 의미였어.”

그 날 이후로 라모나네 가족은 우편 박스를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교사 일자리 제안은 없었다, 라모나는 클릭키텃 주에서 이사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호위가 집에 놀러 오기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라모나는 비저스보다 먼저 가서 전화를 받았다.

“라모나?” 그건 윌라 진의 전화였다.

“윌라 진!” 라모나는 놀랐다. “난 네가 전화 거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몰랐어.”

“호바트 작은 아빠가 가르쳐 줬어,” 윌라 진이 설명했다. “라모나, 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놀자. 제발 부탁이야. 할머니랑 둘만 있는 건 너무 외로워.”

라모나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미안해, 윌라 진, 난 갈 수 없어. 호바트 작은 아빠께서 너와 놀아 주실 거야.”

“작은 아빠는 거의 밖에 나가,” 윌라 진이 말했다.

“작은 아빠에게 여자 친구가 생겼어, 그리고 어쨌든 그는 어른이야.”

“나도 알아,” 라모나는 그가 여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어른이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로 말했다.

“안녕.” 윌라 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전화를 끊었다.

라모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웃에 있는 어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기억해 냈다. 그리고 그녀는 말썽쟁이 라모나로 악명이 높았던 유치원 시절을 기억

해 낼 수 있었다. 그녀는 엄마가 일을 그만 두면 호위에게 월라 진을 가끔 데려 오라고 얘기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호위의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든 어른들이 말했듯이 월라 진이 어린이 집에 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월라 진은 어린이 집 다니기에 적당한 나이이다.

다음 날 버스에서, 라모나는 호위 옆에 앉았다. “월라 진이 말하길 너희 작은 아빠한테 여자 친구가 생겼대.”

“응.” 호위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어떤 선생님이야.”

라모나는 어떤 기분 나쁜 의심이 떠올랐다. “선생님 누구?” 그녀가 물었다.

“나도 몰라,” 호위가 말했다. “작은 아빠는 그게 큰 비밀인 것처럼 행동해. 아마 여자 친구 머리가 두 개가 있거나 그런 가봐.”

라모나는 학교에 도착 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항상 물속으로 잠수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 여자 친구가 누구인지 느낌이 왔다. 그냥 알아졌다. 호위의 작은 아빠는 그녀의 이모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녀도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절로 알아졌다.

방과 후에 라모나는 언니에게 그녀의 고민에 대해서 털어놨다. “진짜? 하지만 이모와 호위네 작은 아빠가 사귀다고 생각하지 않아.” 비저스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애매하게 대답하는 걸로 봐서 라모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비저스가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 그래서 큰 비밀일지도 몰라. 엄마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길 원해. 왜냐 하면 우리가 호바트 작은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베아트리체 이모에게 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오 글썄,” 라모나가 말했다. “그는 언젠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야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작은 아빠를 더 이상 안 봐도 돼.”

“마이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해,” 비저스는 생각하던 것을 내뱉었다.

어느 일요일 날에 콤비 씨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면서 두 딸들에게 두 개의 접시를 더 준비하라고 말했다.

“누가 와요?” 라모나가 물었다.

“베아트리에 이모와 친구.” 퀴비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무슨 친구요?” 두 자매가 물었다.

“오, 그냥 친구야,” 엄마가 두 딸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남자 한 명이에요?” 비저스가 물었다.

“딸들아, 엄마는 스무고개 할 시간이 없어.” 퀴비 부인은 스토브 위에 있는 음식으로 관심을 돌렸다

“남자야.” 라모나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호위의 작은 아빠야.”

퀴비 부인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니?”

“오, 작은 새가 와서 알려줬어요.” 라모나는 어른들이 짜증낼 때 하는 소리를 최대한 흉내 내며 말했다.

“비저스는 분개했다. “지금 베아트리에 이모가 그 끔찍한 사람을 여기에 데려 온다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는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녀를 기억해 냈고 호위의 엄마에게 이모에 대해서 물었어. 호위의 엄마가 이모가 작은 아빠를 기억하는지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지. 그래서 작은 아빠가 이모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고 있는 거야.”

그 의심스러웠던 전화가 바로 이것에 관한 거였구나 하고 라모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글쎄, 하지만 그 아저씨는 여기에 침을 뱉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버르장머리 없게 굴지 마,” 퀴비 부인이 진지하게 말했다.

라모나는 손님들이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호바트 작은 아빠임을 확인했다. 베아트리에 이모와 호바트 작은 아빠가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안녕, 라모나.” 호바트 작은 아빠는 턱수염을 기르고 정장을 입고 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라모나와 또래인 것처럼 라모나에게 인사를 했다.

라모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저씨, 왜 아직도 여기 계신 거예요? 아무도 라모나가 그를 호바트 작은 아빠라고 부르지 않은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라모

나가 그를 아저씨라고 부른 것은 라모나가 호바트 작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라모나!” 퀴비 부인은 단호하게 얘기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라모나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베아트리에 이모는 웃으면서 라모나에게 말했다.

“호바트와 나는 고등학교 때 우정을 다시 이어가고 있어.”

“아직도 침을 뱉나요? 라모나는 엄마가 듣지 못하길 바라면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카펫 위에는 안 뱉는 단다.”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퀴비 부인은 이 대화를 듣고는 라모나에게 말했다. “라모나 네 방으로 올라가고 싶어?”

“아니요.” 라모나는 부루퉁하게 대답했다. 베아트리에 이모는 라모나네 가족이 양들의 마을로 이사를 간다면 섭섭해 할 것이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이모는 어디를 가야하지? 라모나는 이모 혼자 그녀의 아파트에서 냉동 치킨 파이를 먹는 모습을 상상했다.

저녁 식사가 준비 되는 동안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어른들이 이야기 하고 떠들며 웃었다. 라모나는 대화가 잠시 중단 될 때까지 접시만 쳐다보았다. 대화가 잠시 중단 되자 라모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호바트 씨, 저는 당신이 최대한 빨리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길 바라요.”

그는 굉장히 점잖은 미소를 지었다. “라모나, 나한테 섭섭한 거 있니? 내가 가 버렸으면 좋겠어?”

라모나는 그녀의 접시만 쳐다보았다.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지 않을 거란다.”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라모나에게 말했다. “나는 알래스카로 갈 거야.”

그곳이 어디든 적어도 그는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이다.

“그래서 수염을 기른 거야,” 그가 설명했다. “알래스카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모기가 아주 많단다.”

“오 그래요?” 라모나가 말했다.

“물론, 그리고 여자들은 수영을 기를 수 없어서 여름에 모기에 많이 물려,”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말했다.

라모나는 일부러 웃지 않았다.

칼로리에 민감한 퀴비 부인을 제외하고 모두는 디저트를 먹었다. 그리고 어른들은 커피를 마셨다.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요청을 했을 때 라모나는 막 양해를 구하려던 참이었다. “라모나,” 그가 말했다. “나를 이모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니?”

라모나의 얼굴은 빨개졌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놀라고 당황했다. 그녀는 싫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그럼, 어른들은 그녀가 무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겐 호위와 윌라 진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딸이 두 명이면 더 좋지.” 작은 아버지가 말했다.

라모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떻게 제 이모부가 될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글쎄.” 작은 아버지가 말했다. “이모부가 되려면 네 이모 베아트리체와 결혼하면 되지.”

라모나는 의자에 몸을 묻고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베아트리체 이모는 웃음기를 숨기려고 했지만 라모나의 기분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

“그러니깐-” 비저스가 말문을 열었다.

베아트리체 이모는 갑자기 웃음을 터트렸다. “호바트와 나는 2주 뒤 알래스카로 떠나기 전에 결혼을 할 거야.” 알래스카에도 오일이 있어.”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버지에게 인상을 찌푸렸다. 왜 작은 아버지는 당당히 나서서 그와 이모가 결혼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지? 라모나의 엄마 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것이다. 배신자들! 라모나는 그녀 혼자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모는 알래스카에 있고 라모나네 집에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세이지브러쉬와 양들 사이에 있는 우

리 가족들.

“그런데 이모는 알래스카에서 무슨 일을 할거예요? 비저스가 물었다.

“얼음을 뚫고 낚시를 할 거야,” 호바트가 말했다. “우리는 이글루도 지을 거야.”

“작은 아빠 말 귀 담아 듣지마,” 이모가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지원서를 보냈고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어.”

갑자기 라모나는 그녀의 가족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올랐다. “이모,” 라모나는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만약에 이모가 포틀랜드에서 선생님을 그만 둔다면 우리 아빠가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갑자기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렇진 않아,” 이모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을 거야. 다음 가을 학기에 들어 올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을 더 고용하진 않을 거야.”

“정말요?” 라모나가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행복한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비저스에 의해 조용한 침묵이 깨어졌다. “아, 베아트리에 이모!” 그녀는 갑자기 열광했다. “결혼식!”

“우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을 거야,” 이모가 말했다. “결혼식을 올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시청에서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

“베아트리에, 그건 안돼.” 퀴비 부인은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결혼식은 행복한 행사야, 신부측 가족들로부터 선물도 받아야 하고.”

“하지만 진짜 결혼식을 올릴 시간이 없어요,” 베아트리에 이모가 말했다. “아버지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이동주택을 타고 여행 중이야, 결혼식에 올 수 없어.” 아기도 곧 태어날 거구, 언니 혼자 결혼식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베아트리에 이모,” 비저스가 조르듯이 이모를 불렀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청에서 신부들러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결혼을 하는 건 엄마에게도 가혹한 일이에요.”

퀴비 부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잊지 마 -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 혼자 내 결혼식을 다 준비하셨어.”

“결혼식에 남자는 필요 없는 건가요?”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가 싫어요. 우리 결혼식 날 모두 다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흥 아저씨 때문이잖아, 라모나는 작은 아버지를 쏘아보며 생각했다. 아저씨가 전부 망쳤어.

“하지만 결혼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콤비 부인이 의자를 뒤로 밀고 팔을 옆지가 있는 배 위에 올려놓았다. “결혼식에 모두 다 모일 수는 없을 거야.”

“아이러니야,”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말했다. “여자들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가 맡아서 할게.”

“엄마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어때요? 비저스가 이모에게 제안했다. 비저스와 라모나는 엄마의 웨딩드레스를 감상하기 위해 박스에 들어 있는 드레스를 가끔 꺼내보곤 했었다. 비저스는 항상 거울 앞에서 베일을 쓰고 드레스를 몸에 대 보곤 했다.

“그러면 되겠네,” 작은 아버지가 말했다. “웨딩드레스가 소중히 잘 관리 되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신부 들러리 대표는 하지 않을 거야, 드레스를 입을 수 없어,” 콤비 부인이 말했다.

“비저스와 라모나는 신부 들러리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들러리 대표는 절대 못해.” 베아트리에 이모는 새로운 결혼 계획에 점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라모나는 신부 들러리가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번쩍 들었고 결혼식을 치르는 것은 매우 재미있을 것 같았다.

“월라 진이 꽃을 들고 신부 앞에 걸어가면 되겠네.” 베아트리에 이모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29명의 학업 성취 성적표를 써야 하고 알래스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방한복도 사러 가야 해. 차도 팔아야 하고 호바트는 승합차를 사륜구동 트럭으로 바꿔야 해. 그리고 -”

“당신은 좋은 스키복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작은 아빠는 아마 그 스키복이 마이클이라는 남자 때문에 샀다는 것은 모를 것이다. 마이클과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것은 오직 이모만 알고 있을 것이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써야 하는 29명에 대한 학업 성취 보고서는, 아이들 전부 잘 하잖아, 그게 부모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 사실이기도 하고.”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빠를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학업 성취 보고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아마 그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퀴비 씨가 말을 꺼냈다. “내가 냉동식품 창고에서 일할 때 썼던 양말을 줄게, 쇼핑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거야, 학교가 방학하면 나는 냉동 창고에서 일 하는 것을 영원히 그만 둘 거야. 냉동 창고 온도가 알래스카 겨울 온도와 비슷할 테니 내 양말이 아주 마음에 들걸. 그리고 지금 방한복 파는 데가 없을 거야, 내 방한복도 줄게.”

퀴비 씨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는 라모나에 의해 중단 되었다. “아빠, 다른 학교에서 아빠를 고용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니야, 아가, 연락 오지 않았어,” 그가 고백했다, “하지만 스포라이트 마켓에서 작업 관리자로 일해 달라고 제안을 받았어. 연봉과 부가 수당이 괜찮아서 하겠다고 했어. 학교가 방학하면 바로 시작할 거야.”

“아빠!” 비저스가 외쳤다. “그럼 다시 마켓에서 일하는 거예요? 미술 가르치는 건 결국 못하는 거 예요? 하지만 아빠는 마켓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살면서 항상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퀴비 씨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지.”

“그래,” 퀴비 부인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해.”

“그렇다고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야, 비저스. 매니저가 되는 것은 계산대 직원이 되거나 식품 냉동 창고에서 식품을 쌓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 하지만 라모나

의 아빠의 미소로도 그의 낙심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자 이제 결혼식 계획을 세워 보자.”

라모나는 안도했다. 낯선 아이들이 그녀의 방에 크레용으로 낙서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모나는 호위, 학교,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 베아트리체 이모만 못 보게 될 것이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콤비 씨의 얘기로 인해 조용해진 침묵을 깼다. “그래, 우리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봐요.” 여자들은 보통 집에 결혼식이 있으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친구들에게 전화 해서 결혼식에 초대해,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별 거 아니야.”

엄마와 이모는 서로 마주 보며 기쁜 미소를 지었다. “당신 좀 멋진데!” 이모가 말했다. “당신이 준비한 결혼식이라면 어떤 결혼식이든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빠를 설득해서 셔플 게임, 빙고, 햇살이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를 떠나 나에게로 와 달라고 이야기 하면 되겠네.” 가족들은 데이 할아버지가 은퇴한 후 겨울에 비가 오는 오리곤을 떠난 이후로 거의 보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올 거예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라모나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와야 해요.”

“토요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호바트 작은 아빠가 말했다. “윌라 진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드레스를 사러 갈 거야, 그 동안 이모는 학업 성취 평가서를 서둘러서 쓰고.”

“서부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치르는 결혼식인 거 같아.”

라모나와 그녀의 언니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말했다. 미혼의 석유 기사가 쇼핑을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7

서로서로 지켜보기

토요일 아침, 윌라 진과 호위는 호바트 작은 아빠와 함께 결혼식에 입을 옷을 사기 위해 승합차를 타고 비저스와 라모나를 데리러 왔다.

“네가 왜 우리랑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야?” 라모나는 호위에게 물었다.

호위는 라모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에 작은 아빠에게 불평했다, “수백 번 얘기했지만 정말로 반지 전달하는 소년은 하기 싫어요. 할머니가 머라고 하든 하기 싫어요. 저는 반지를 전달하는 소년을 하기에겐 너무 컸어요.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 예요. 내가 반지를 전달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게다가, 나는 그걸 떨어뜨릴 지도 몰라요.”

“조카야, 나는 네 편이야,” 작은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 좀 맞춰 드리자. 할머니는 반지를 놓을 예쁜 쿠션을 만드느라 바빠 그리고 반지가 떨어지지 않게 실 몇 가닥으로 느슨하게 고정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조카가 나 때문에 이걸 하게 되었다고 날 비난하면 작은 아빠가 너무 속상하지.”

“난 작은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조카가 아니잖아요,” 호위가 말했다. “내가 유일한 남자 조카잖아요.”

“엘지가 태어나면 경쟁해야 할 지도 몰라,” 호바트 작은 아빠가 말했다. “그럼, 비저스 여자아이 드레스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글쎄요 . . . 쇼핑센터에 신부용품 파는 가게가 있어요.” 비저스는 호바트 작은 아빠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쩐지 부끄러웠다.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사이즈가 있을 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출발!” 호바트 작은 아빠는 그의 차를 후진한 뒤에 쇼핑센터를 향해 출발했다. 쇼핑센터의 주차장은 혼잡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서로 잘 지켜보는 거야.” 호바트 작은 아빠가 겨우 차를 주차하고는 말했다. “나는 비저스를 잘 지켜 볼 거야. 비저스는 호위를, 호위는 라모나를, 라모나는 윌라 진을 잘 지켜 봐야 해.” 각자 다음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보렴.”

“나는 비저스가 지켜보지 않아도 돼,” 호위가 불평했다. “그리고 비저스는 항상 바르게 행동해.” 윌라 진은 마치 라모나가 감동을 받고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

는 듯이 라모나의 손으로 자기 손가락을 잡게 했다. 이 어린 소녀의 손가락은 끈적였다. 쇼핑몰에서 하얗고 하늘하늘한 드레스들과, 웨딩드레스 베일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가 가득 진열되어 있는 신부용품 가게를 발견할 때까지 서로를 지켜보는 것은 계속 되었다.

“오-” 비저스가 숨을 내뿔었다.

“음,” 호위가 말했다.

라모나는 삼면으로 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 않았다. 윌라 진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호위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자기 발만 노려보았다. 판매원은 모두 가버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신부 들러리 드레스 두 개 그리고 꽃을 주는 아이를 위한 드레스 한 개.” 호바트 작은 아버지는 마치 햄버거를 주문하는 것처럼 주문했다.

드레스가 나왔다. 비저스와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민망했고 자신들이 고른 드레스가 맘에 드는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윌라 진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저 드레스가 좋아,” 그녀는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드레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도 마음에 드니? 작은 아버지가 물었다. 두 자매는 노란색이 더 마음에 들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드레스는 비저스와 라모나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다른 체인점에 따로 주문을 해야 했다. 판매 여사원은 결혼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판매 여사원은 꼭 날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3개의 드레스 값을 지불하는 동안, 라모나는 윌라 진에게 호위 옆에 앉으라고 속삭였다. 윌라 진은 말을 듣지 않았다.

라모나는 삼면이 된 거울로 자신을 비춰 보기 위해 거울로 갔다.

라모나는 모든 거울에 그녀의 앞과 뒤를 비춰 보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라모나들을 보기 위해 춤을 쳤다. 거울에 비친 라모나들은 그녀를 따라 춤을 쳤다. 거울에 비친 라모나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점점 작아지면서 계속 춤

을 찮다. 거울에 비친 라모나들은 영원히 자신을 따라 춤을 출 것이라고 라모나는 생각했다. 라모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제, 반지 전달하는 소년은 멀 입어야 하지?” 작은 아빠가 호위를 보았다. 호위는 소파 안으로 미끄러져 파묻힌 채 짜려보았다.

판매 점원은 그 소파는 호위의 것이 아니라는 듯이 호위를 주시하였다. 그녀는 춤을 찮다. 많은 라모나들이 그녀를 따라 빙글빙글 춤을 추도록 계속 춤을 찮다.

“적절한 옷을 입어야죠,” 점원이 말했다. “결혼식에서 남자 아이는 반바지, 무릎 양말, 하얀색 셔츠와 재킷을 입어야 해요: 근데 반지 전달하는 아이들은 보통 어린 소년들이예요. 대략 4 -5세 정도 되는.”

“봐, 내가 머라고 했어요?” 호위는 작은 아빠에게 따졌다.

작은 아빠는 그의 조카의 말을 무시했다.

“이리와, 비저스,” 그는 윌라 진의 드레스를 팔에 끼고 말했다. 다음 주자인 그녀는 말했다, “이리로 와, 호위,” 호위는 라모나에게 말했다, “라모나, 이리로 와,” 라모나는 윌라 진에게 말했다. “이리로 와 윌라 진. 작하게 굴어서 고마워.” 윌라 진이 쏘아 보았다. 점원은 우리가 모두 가버려서 매우 행복한 것처럼 보였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아이들을 이끌고 호위의 바람과는 반대로 남자 아이 옷 파는 가게로 갔다. 그는 파란색 반바지, 하얀색 셔츠, 그리고 연한 파란색 재킷을 샀다. “모두 날 비웃을 거야,” 호위가 말했다. 판매원은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무릎 양말은 팔지 않는 다고 말했다.

비저스는 호위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여자 아이들 옷 파는 가게에는 무릎 양말을 팔아요,” 그녀가 제안했다.

“너 입 닥쳐,” 호위가 말했다.

호바트 작은 아빠의 좋은 성격은 그걸 지나치지 못했다. “말버릇 조심해,” 작은 아빠는 여자 아이들 옷 파는 가게로 무리를 이끌면서 호위에게 주의를 찮다. 그는 호위를 위한 파란색 무릎 양말을 샀다. “비저스, 이제 결혼식을 위해 뭐가 더 필요하지?”

“꽃이요,” 비저스가 대답했다.

꽃 가게로 가는 길에, 쇼핑 무리들은 세일하고 있는 스키 용품 판매 가게로 들어갔다. “너희 이모랑 나에게 필요로 한 거야,” 작은 아빠가 말했다. 스키 복이 진열된 곳으로 가서 재빠르게 누빔이 된 재킷을 그와 이모를 위해 했다. 방수 바지, 털가죽을 댄 장갑, 두꺼운 양말과 부츠도 샀다. 전부 세일 중이었다. 다행히도 비저스는 이모의 사이즈를 알고 있었다.

“작은 아빠가 설마 이 스키와 관련된 것들을 결혼식에서 입지는 않겠지?” 라모나는 윌라 진이 입은 남자 재킷을 벗기면서 비저스에게 속삭였다.

“누가 알아?” 비저스가 말했다. 호바트 작은 아빠가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쇼핑 무리들은 쇼핑한 가방과 상자를 들고 승합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으로 갔다. 다시 쇼핑몰로 돌아오는 길에 윌라 진은 52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보았다. 그리고 작은 아빠에게 사 달라고 졸랐다. 작은 아빠는 모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다.

바쁜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윌라 진을 지켜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진 라모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윌라 진을 위해 모든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52가지 맛을 크게 읽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딸기, 독일 초콜릿, 바닐라, 생강-복숭아, 레드, 화이트, 블루베리, 검은 호두, 미시시피 머드, 초록색 풍선 껌, 베이스볼 넷 맛이 있어” 단호하게 라모나는 계속 읽었다. 피스타치오는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넘어갔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봉숭아 맛, 마카다미아 너트 맛을 읽었다. “아보카도(아보카도 아이스크림?) 퍼지 초콜릿 케이크 - ” 그녀는 호바트 작은 아빠의 차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침내 차례가 왔다.

“초콜릿 오렌지 맛 아이스크림 다섯 큰 숟갈에 위에 땅콩 가루를 뿌려 주세요,” 작은 아빠가 주문했다.

땅콩을 뿌린 더블 아이스크림이라니. 비저스와 라모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이스크림을 서로에게 건네고 햇빛이 내리쬐는 주차장으로 갔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열기와 먼지 속에서 잠을 청하려고

한밤중에 침상에 누우면 저 멀리 늑대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 때 초콜릿 오렌지 더블 아이스크림콘에 땅콩 가루를 듬뿍 뿌려서 먹고 싶었다.”

라모나는 아이스크림이 흐르자 활아먹었다. “저번에는 호위 할머니의 사과 파이가 먹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먹고 싶었지,” 작은 아빠가 말했다.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 이상의 꿈을 꿀 수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늑대는 없어요,” 호위가 말했다.

“알겠어, 그럼 낙타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으로 하자.” 호바트 작은 아빠는 쇼핑 몰에 있는 꽃 가게로 무리를 이끌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게 안에 들어 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규칙은 호바트 작은 아빠를 막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어 출입구에서 신부를 위한 하얀 부케 하나, 여자 아이들을 위한 화관 3개라고 말하며 소녀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신부 들러리 용 부케 두 개 너무 큰 거 말고.” 무슨 색?” 그는 비저스에게 물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입 물었다.

“분홍색이랑 비슷한 색이요, 드레스랑 잘 어울리게,” 비저스가 말했다. 그녀는 활아 먹는 대신 조금씩 야금야금 먹으면서 대답했다.

“분홍색,” 작은 아빠는 주문했다, “그리고 꽃을 든 소녀를 위한 작은 꽃 다발 하나. 꽃이 없는 꽃을 든 소녀는 있을 수 없으니깐, 그렇지 않니, 율라 진?” 율라 진은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느라 너무 바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신랑 께 하나랑, 신랑 들러리 하나, 하객 안내를 담당하는 남자 두 명 것도 필요해요. 오 그리고 반지 전달하는 소년을 위한 것도 하나.”

“아, 호바트 작은 아빠,” 호위는 투덜거렸다. 작은 아빠는 놀란 꽃 가게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고 라모나네 집으로 배달해야 할 시간을 알려 주었다. 율라 진의 꽃과 신랑 들러리들을 위한 꽃은 호위네 집으로 배달 되도록 했다.

“이제 가자 꼬맹이들아, 집으로 가자,” 작은 아빠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것처럼 결혼 준비는 별거 아니야.”

라모나는 그녀의 팔로 흐르는 아이스크림을 활으면서 드레스가 제 시간에 맞

취 오기를 바랐다. 그녀는 비저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아빠, 낙타는 울지 않아요,” 호위가 말했다. “낙타는 콧소리를 낸다고요.”
모두 호위가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비저스는 아이스크림콘을 조금씩 먹으면서 물었다. “우리는 교회나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녀는 호위의 작은 아빠가 결혼식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그의 아이스크림콘의 마지막 남은 부분을 씹어 먹었다. “다 준비했어, 결혼반지 그리고 음식을 공급할 공급업자, 계속 메모했지만 먼가 잊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는 아마도 잊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라모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 3면으로 된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들러리 드레스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빙글빙글 드레스를 입고 빙빙 도는 것을 영원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8

가족들이 함께 모이다

라모나네 집은 곧 분주해지고 혼잡스러워졌다. 퀴비씨는 이제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을 하러 갔다. 그리고 베아트리에 이모는 아파트 한 달 임대비를 아끼기 위해 저번 달 말에 라모나네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녀는 라모나네 집 지하실에 짐을 쌓아놨다. 그리고 알래스카로 가기 위해 싼 짐들은 라모나의 방에 쌓아두었다.

라모나는 비저스의 방에서 비저스가 지난여름에 캠프에서 썼던 침낭에서 잤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이웃들은 결혼식을 돕겠다고 했고, 이모가 팔려고 내놓은 작은 스포츠카에 대한 문의도 계속 이어졌다. 친구들은 결혼식에 오겠다는 회답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고, 그들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이모의 동료 교사들은 브라이덜 샤워⁷⁾ 파티를 열어 주었다. 대부분의 선물들은 납작하고 포장하기 쉬운 모양이었다. 목욕타월, 치즈용 도마, 접시 매트. 이모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은 커피 메이커를 사 주었다. 라모나 방에 선물들이 쌓였다.

윌라 진이 쓰던 오래된 아기 요람을 라모나네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부모님 방에 두었다. 이웃들은 콧수염 부인이 아이를 가진 것을 축하하는 베이비 샤워를 열어 주었다. 그래서 더 많은 선물들이 라모나 방에 쌓였다. 비저스와 라모나는 엘지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엄마 배속에 있기를 바랐다. 엄마는 매일매일 점점 커졌다. 아니면 그녀가 입은 임신부 옷이 그녀를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결혼 선물들은 대부분 목욕 타월 세트였는데 집으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라모나는 그렇게 예쁜 수건은 여태껏 본적이 없었다. 크고, 두껍고 폭신하고 부드럽고 예쁜 색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타월을 쓰다듬었다. 디자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훑으면서 볼에 타월을 비볐다. 그것은 정말 결혼하는 사람을 위한 타월이었다. 라모나네 얇고 바란 수건은 끝이 너덜너덜 해졌다.

웨딩 리허설 날 오후, 리허설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 할아버지가 탄 비행기는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을 연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모의 차는 팔렸고, 이모는 작은 아빠의 차를 빌려서 그녀의 조카들을 데리고 그녀의 아빠를 만나러 공항으로 갔다. 데이 할아버지는 손녀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늙고 살이 빠져 있었다. 그는 손녀들이 많이 컸다고 말하며 손녀딸들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냥 모텔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결혼으로 인해 여자들이 피우는 소동 때문에 거실에는 그가 앉아 있을 소파가 없을 거라고 했다. “내 나이가 되면, 약간의 평화와 고요함이 필요해,” 그는 딸들에게 말했다. 가장 가까운 모텔에 그의 짐 가방을 놔두고 이모는 운전해서 그녀의 아빠를 라모나네 집으로 모시고 갔다. 라모나네 집에는 더 많은 선물 상자들이 도착해 있었다. 그러나 그중 신부 들러리 드레스는 없었다. “걱정 하지 마,” 할아버지가 말했다. “결혼식은 항상 실수가 일어난단다.” 두 자매는 걱정스런 눈빛을 교환했다.

7) 브라이덜 샤워: 결혼을 앞둔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여는 파티

호바트 작은 아버지는 새로운 결혼 선물을 보기 위해 라모나네 집으로 왔다. 전리품, 그는 선물들을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가기 위해 거의 4륜 구동 트럭으로 바뀔 뻔 했던 그의 차를 가지러 왔다. 제설기를 앞에 달 수 있는 차였다.

퀸비 부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피곤하고 커 보였다. 결혼 리허설 전에 두 가족이 함께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큰 토스트 샐러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비저스는 쌓여있는 프랑스빵에 버터를 발랐다. 퀸비 씨는 일이 끝나고 집에 늦게 도착했다. 왜냐하면 마켓의 계산원이 줌도둑을 잡았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야 했고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베아트리에 이모도 피곤해 보였다.

호바트 작은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비저스는 절망적으로 그에게 들러리 드레스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속삭였다. “내가 알아볼게,” 그는 아침에 꼭 드레스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가게에 전화를 했다. “오늘 밤, 오늘 밤에는 드레스를 꼭 보내줘야 합니다,” 호바트 작은 아버지는 마치 유전에서 선원들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했다.

호위네 가족은 캐서롤⁸⁾과 디저트를 가지고 왔다. 식당은 많은 사람이 앉기에 작기 때문에 음식들은 식당 테이블 위에 준비되었고 사람들은 접시에 자신이 먹을 음식을 담아서 먹었다. 라모나는 더 이상 월란 진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어서 기뻐했다. 월라 진은 문제를 일으켰고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모든 사람이 식당에 둘러 앉아 누들을 곁들인 치킨, 야채를 곁들인 캐서롤, 그리고 샐러드를 먹었다. 베아트리에 이모는 호바트 작은 아버지 옆자리 바닥에 앉아서 물었다, “교회와 식당을 장식할 꽃은 어떤 걸로 주문했어요?”

호바트 작은 아버지는 포크를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탁 쳤다. “교회 장식용 꽃! 완전히 잊고 있었어.”

“호바트 주문하지 않은 거야? 내가 리스트에 함께 적어 줬잖아.” 이모는 작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신랑은 매우 장난꾸러기이기 때문이다.

8) 오븐에 넣어서 천천히 익혀 만드는, 한국 음식의 찌개나 찜 비슷한 요리

“주문하지 않았어,” 작은 아빠가 고백했다. “우리 모두 아이스크림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꽃가게에 연락할게.”

“제정신이야?” 이모가 소리쳤다. “결혼식 날 주문하자고? 6월에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어디서 꽃을 구해와? 게다가, 장미 축제가 있는지 얼마 안됐잖아!”

그녀는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이사하고 흥분하느라 이미 지쳐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약혼자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당신이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보니, 당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지 알겠어.”

“내가 그렇게 바보 같다면 왜 나랑 결혼하는 거야?” 호바트는 따져 물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양 쪽 가족은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물론 큰 아이들은 싸우는 것에 정신이 팔렸다. 윌라 진은 곧 울음을 터트릴 것처럼 보였다.

“좋은 질문이네,” 베아트리에 이모가 말했다.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선생님들은 항상 나에게 좋은 질문을 한다고 말했었지.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 선생님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냐고 묻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그 질문을 하곤 했지. 자 내가 좋은 질문을 했으니 당신이 이제 말해봐. 당신은 꼭 내 선생님처럼 말하니깐.”

“나는 선생님이야.” 베아트리에 이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저스와 라모나는 “결혼식을 치르지 못할지도 몰라”라는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이제 신부들러리 드레스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았다. 호위는 쿠션 위의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찬 것처럼 보였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언성을 높였다. “한번이라도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직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왜 나랑 결혼하려는 거야?”

베아트리에 이모는 선생님처럼 이야기 했다. “호바트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녀는 아주 쾌활한 척 미소를 지으며 뒤로 돌아 소리 쳤다, “당신을 사랑하

니깐, 세균덩어리야!”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다.

라모나는 황당했다. 3,4학년 학생들끼리 서로 놀릴 때 세균덩어리라고 부른다. 어른들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퀸비씨는 그의 부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퀸비 부인은 모든 사람이 나가 쫓으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그가 속삭였다.

“괜찮아.” 퀸비 부인의 목소리는 약간 날카로웠다. “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안 괜찮으면 안 돼? 저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요란 떨지 마.” 퀸비씨는 상처 받은 것처럼 보였다.

호바트는 진정했고 민망해했다. 베아트리에 이모는 그녀의 새 목욕 타월 중 하나를 이용해서 타월의 끝으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가 직접 꽃을 꺾어 오면 안돼요?” 라모나가 물었다.

“어디에서 꽃을 꺾어?” 비저스가 물었다. “뒤뜰에 있는 벌레가 많은 팬지꽃을 말하는 거야?”

“자, 자, ” 데이 할아버지가 말했다. “결혼을 앞두고 초조해서 그래. 모두 진정 하렴. 나는 40년 동안 여기에서 살았어.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좋아 하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지. 전화 몇 통만 하면 네가 필요한 꽃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데이 할아버지 말이 옳았다. 이웃 두어 명이 활짝 핀 작약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많은 양의 장미꽃을 가지고 있었고 기꺼이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멋진 배경을 만들어 주는 월계수를 가지고 있었고 마침 그 나무를 가지치기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꽃 문제가 해결이 되자 베아트리에 이모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도 잊어버리고 말 못한 게 있어. 내가 가르치는 3학년 아이들 모두를 초대했다고 말하는 걸 잊어 버렸어. 아이들이 너무 오고 싶어 했거든.”

오, 안돼, 라모나는 생각했다. 3학년 애들은 결혼식에 나온 음식들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고 사람들 사이를 뛰어 다니고 음식을 흘릴 것이다. 그래도, 라모나는 베아트리에 이모에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한 번 만나보고

싶긴 했다.

“좋아!” 호바트 작은 아빠가 말했다. “29명의 손님들을 위해 샴페인을 주문할게.”

라모나는 29명의 3학년 아이들이 찰랑거리는 샴페인을 들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호바트!” 호위네 할머니가 그녀의 막내아들에게 야단치듯 말했다. “흥분하지 마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해. 아이들에게 샴페인을 줄 순 없어. 펀치⁹⁾를 주문해.”

“알겠어요, 어머니.” 호바트 작은 아빠는 시계를 흘끔 보았다. “잊어버린 것들이야기 하는 김에 얘기하는 데 리허설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돼요.”

결혼식 파티에 온 사람들은 자신의 접시를 빨리 부엌에 가져다 놓았다 - 나중에 호위의 할머니가 만든 치즈케이크를 먹을 것이다. - 그들은 모두 트럭에 올라탔다. 작은 아빠는 교회로 차를 몰았다. 라모나와 비저스 그리고 호위는 호바트 작은 아빠와 그의 신부 사이에 끼어 앉은 채로 갔다. 그 때가 그 차를 탄 유일한 날이었다.

“비좁아, 비좁아,” 호위는 중얼거렸다. “29명의 아이들은 바보 같은 작은 쿠션을 들고 여자 아이 양말을 신은 나를 비웃을 거야.”

“들러리 드레스는 아직도 안 왔어요,” 비저스가 걱정했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 너희들은 운동복을 입고 통로를 걸어가도 아주 예뻐 거야.”

호위네 차가 출발하자 다른 차가 들어 왔다. 한 남자가 상자 하나를 들고 트럭에서 뛰어 내렸다. 그리고 라모라네 집 쪽으로 달려갔다. 라모나는 박스에 적혀진 **신부 들러리**라는 글자를 얼핏 보았다. “우리 드레스다!” 그녀는 소리 질렀다.

“후유, 다행이다,” 비저스가 말했다. “이제 옷이 맞기만 하면 되겠네.”

“호바트 작은 아빠,” 호위가 말했다, 낙타가 어떻게 우는지 아직 말 안 해줬어요.” 라모나는 호위가 제발 낙타를 잊어버리고 결혼식에 집중하길 바랐다.

작은 아빠는 말처럼 히잉 하고 우는 소리를 냈다. “어때?”

9) 과일즙에 설탕, 양주 따위를 섞은 음료를 말한다.

“맞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호위가 말했다.

라모나는 드레스가 맞을지 걱정되지 않았다. - 옷핀이 해결 해 줄 것이다. - 아니면 낙타가 해결해 주든지, 그녀는 4학년을 앞두고 있는 3학년 학생 29명이 바나나 스티커를 이마에 붙이고 올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앨지가 결혼식이 전부 끝날 때까지 배속에서 기다려 줄지도 궁금했다. 7월은 그렇게 하루하루 다가왔다.

9

가까스로 궁지에서 벗어난 라모나

결혼식 날!

신부 들러리 드레스는 너무 길었다. “핀!” 베아트리에 이모가 외쳤다. “핀 좀 더 가져와!” 라모나 엄마는 부른 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앉을 수가 없었다.

드레스는 슬립과 세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베아트리에 이모가 단을 올려서 드레스와 슬립을 각각 핀으로 고정 하는 동안 소녀들은 꼼짝 않고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꽃 가게 점원들이 꽃들을 가지고 왔고 그들은 그 꽃이 너무 보고 싶었다. 소녀들은 꿈지락거렸다. “비저스, 라모나 옷단 줄여.” 베아트리에 이모는 말하면서 마지막 핀을 제자리에 꽂아 넣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버텨 줄 거야.” 그녀는 서둘러서 웨딩드레스를 다림질 했다.

홍조를 띤 채 비저스는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빠른 속도로 라모나의 치마 단을 줄였다. 라모나는 그녀 언니의 바느질 솜씨를 믿을 수 없었다. 언니는 스카치 테이프로 단을 고정했다.

모두 머리를 감아야 했다; 모두 샤워도 해야 했다. 라모나가 샤워를 할 순서가 되었을 때 뜨거운 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왜, 그니깐 왜, 가장 어린 사람이 항상 제일 늦게 씻어야 하지?

퀸비 씨는 마켓에서 오후 휴가를 받았으나 집에 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었다. 아빠가 못 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빠는 다행히 제 때에 도착했다, 그리고 라모

나는 아빠가 샤워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돌렸을 때 욕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

데이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계셔? “당신이 아버지 데리러 가기로 하지 않았어?” 퀴비 부인이 욕실 문을 잡고 물었다.

“아버님께서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알아서 여기로 오실 거야,” 퀴비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가족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분주했다 - 결혼 선물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머리가지고 호들갑을 떨다가, 아무도 먹지 않을 샌드위치를 만들기도 했다.

드레스 입을 시간이다! 두 소녀들이 비저스의 방에서 드레스로 갈아입는 동안 베아트리에 이모는 라모나의 방으로 사라졌다. 비저스가 팬티스타킹을 입는 동안 라모나는 하얀 양말을 신었다. 분홍색 슬립이 그들의 머리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옷 중 가장 예쁜 옷인 드레스를 입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장 좋은 신발 안에 발을 밀어 넣었다. 비저스는 그녀의 빛나는 머리를 빗었다. 라모나도 머리를 빗었다.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엄마에게 자랑하러 갔다. 엄마는 사랑스럽다고 말해 주었다. 앨지를 빼고 두 자매는 엄마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고 살랑살랑 나부끼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드레스는 아이를 가졌던 이웃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그 드레스는 몇 년 동안이나 클릭키텐 주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돌려 입었던 옷이었다. “임산부용 드레스를 입을 일이 딱 한 번 밖에 없었대.” 퀴비 부인이 설명했다.

그리고 베아트리에 이모는 그녀의 언니의 웨딩드레스와 베일을 입고 나타났다. “와우, 이모,” 비저스가 놀라서 이야기 했다, “이모 정말 예뻐요.” 라모나는 너무 감동해서 말을 하지 못했다.

“퀴비 부인은 그녀의 여동생에게 키스를 하며 말했다, “나는 이 드레스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도 행운을 가져다주길 바라.”

라모나는 그녀의 하얀 신발이 맞지 않아서 불안하기 시작했다. 그 신발은 적어도 일 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불평을 하느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신부는 걱정이 되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호바트를 교회에서 계속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 데이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계신 거지? 모두가 할아버지를 걱정했고 혼란스러워 했다. 그가 묵던 모텔에서 그의 방에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다. 점점 모두가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라모나가 창밖을 바라보고 소리를 질렀다. “저기 좀 봐!” 데이 할아버지가 진짜 기사가 운전하는 긴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왔어, 기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 왜,” 베아트리에 이모는 울먹였다. “리무진을 빌릴지 않아도 - ”

“더 이상 아무 말 말거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우리 막내딸 결혼식이 아주 멋졌으면 좋겠구나.”

“와우!” 라모나는 그녀의 신발에 대한 걱정은 잊어버리고 신나서 소리쳤다. “어서 리무진을 타요!” 이모의 제자들인 3학년 아이들 아니 지금은 4학년이 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퀸비 부인은 꽃이 담겨 있는 상자에서 작은 분홍색 장미로 만들어진 화환을 꺼내서 헤어핀으로 딸들의 머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그리고 딸들에게 작은 꽃다발을 주었다. 두 딸들은 꽃의 향기를 맡았다. “아!”

이모는 하얀 색 부케를 들었다. “따라 오렴,” 데이 할머니가 말했다. “신랑이 기다리다 지쳐서 가버리겠다.” 가족들은 리무진에 올라탔다, 퀸비씨는 앞자리에 기사와 함께 앉았다. 비저스와 라모나는 접의 식 의자에 앉아서 신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그녀의 긴 드레스 아래로 라모나는 짝 끼는 신발을 슬쩍 벗었다. 그래서 그녀는 리무진을 타는 매 순간을 편히 있을 수 있었다.

“자 이제 명심해야 해 딸들아,” 퀸비 부인이 말했다. “교회 맨 앞에 너희 자리까지 걸어간 이후에는 꼼짝 말고 서 있어야 해.”

리무진이 교회 앞에 미끄러지듯이 도착했을 때 베아트리에 이모네 반 학생들은 모두 차 하나를 같이 타고 왔다가 리무진을 보고 아주 놀라워했다. 아이들은 그들이 타고 온 차를 조용히 내려서 둘씩 짝을 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대부

분의 남자 아이들은 뽀뽀한 새 바지와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한 커플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여자 아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라모나는 프틀랜드에서 아침에 그토록 깨끗이 감은 머리를 많이 본 것은 처음이었다. 베아트리지체 이모는 그녀의 반 학생 아이들이 결혼식에 걸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도했다. 그 때 라모나는 다시 짝 끼는 신발에 발을 구겨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식 하객들은 피로연장 뒤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피로연장에는 호바트 작은 아빠와 신랑 들러리인 호위의 아빠를 제외하고 호위네 가족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라모나는 곱슬머리 위에 장미로 만든 화환을 올린 율라 진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다. 호위는 반바지와 무릎 양말을 신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라모나는 호위가 못된 장난을 치는 모습과 다르게 오늘은 그가 정말로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위가 매우 부드럽게 신부를 놀리는 노래를 부르자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

“신부가 오네요.

아주 뚱뚱하고 커요

신랑이 오네요.

빳자루처럼 말랐어요.

신랑 들러리가 오네요.

오래된 화장실 청소부 같아요.

“호위, 입 닥쳐!”

라모나는 맹렬하게 화를 내며 속삭였다. 신부가 들으면 어떡하지? 이모는 그 노래를 듣고 웃었다. 그녀는 호위의 나이 때에 남자아이들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호위의 할머니는 손자에게 결혼반지를 실로 고정된 작은 레이스가 달린 쿠션을 건네주었다.

“아마 나는 떨어뜨릴 거야; 그가 확신했다.

“아니, 안 떨어뜨릴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확실히 해 두었거든.”

“비저스, 발이 아파 죽겠어,” 라모나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속삭였다. “내 신발은 너무 작아.”

“나도 그래,” 비저스가 말했다. “나는 절대 결혼식장을 걸어 갈 수 없을 거야.”

호위의 할머니는 교회의 결혼식장으로 입장하기 위해 하객들과 함께 줄을 섰다. “결혼식장 맨 앞까지 걸어 간 다음에 절대 움직이지 마,” 그녀가 명령했다.

“빨리,” 비저스가 라모나에게 속삭였다. “네 신발을 나에게 줘.” 놀란 라모나는 언니의 말을 따랐다. 하객들이 피로연장에서 교회의 현관으로 이동할 때 비저스는 큰 진달래 화단에 두 켤레의 신발을 떨어트렸다. 그 때 오르간 행진 음악이 갑자기 시작됐다. 두 소녀는 킁킁 웃다가 웃음을 멈췄다.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호바트 작은 아빠의 친구들은 빌린 옷을 멋지게 차려 입고, 근사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호위의 엄마, 할머니 그리고 콤비 부인과 함께 홀 맨 앞까지 입장을 한 후 홀을 천천히 되돌아 왔다.

라모나와 비저스는 숫자를 4까지 세고 출발했다. 카펫은 그들의 발바닥을 간질였다. 작은 꽃다발을 든 손은 긴장으로 떨렸다. 그들은 고상하게 천천히 뒤를 따랐다. 라모나는 율라 진도 숫자를 4까지 세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율라 진이 그녀 뒤에 따라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네 발자국 뒤에는 호위가 있었다. 호바트 작은 아빠와 호위의 아빠는 놀랍게도 아주 멋있게 긴 결혼식장 끝에서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모든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아트리에 이모가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 안으로 함께 입장했다. 그녀의 반 학생들은 그들의 선생님을 보고 긴장했다.

결혼식장의 맨 앞 그녀의 자리에서 라모나는 그녀의 이모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걸었다.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 도착하자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목사가 결혼 시작을 알리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뒤로 한 발 물러서달라고 요청하자 모든 신부의 아버지가 그렇듯이 할아버지는 이모를 신랑에게 건네주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라모나는 그녀의 양말 안에서 발가락을 행복하게 꼼지락거렸다. 호위의 아빠가 쿠션에서 결혼반지를 빼려고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호위를 믿지 못한 할머니가 반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단단하게 고정하는 바람에 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 호위의 아빠는 반지를 잡아당겼으니 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 호위는 아빠가 반지를 잡아당기는 동안 쿠션을 짹 움켜쥐었다. 반지는 쿠션에서 떨어져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반지는 공중으로 날라 가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다.

하객들은 숨을 멈췄다. 결혼식에 참석한 아이들은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동상처럼 서 있었다. 결혼식은 잠시 중단이 되었다.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지를 찾기 시작했다. 베아트리에 이모도 반지가 드레스 안으로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사람들은 몸을 숙여서 반지를 찾았다. 잠시 후, 그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카펫 위에 떨어진 반지를 손으로 더듬으며 찾기 시작했다. 라모나는 베아트리에 이모의 결혼식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아트리에 이모가 반지를 찾기 위해 허리를 굽혔을 때 라모나는 먼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결혼반지는 신부의 신발 옆에 떨어져 있었다. 어떻게 거기에 떨어졌지? 반지는 이모의 드레스 밑으로 굴러 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모가 뒷걸음질을 쳤을 때 이모가 반지 옆에 서게 된 것이다. 교회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소리, 불안해하는 하객들.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다. 지금 당장.

라모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반지가 어디 떨어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라모나 밖에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생각했다. 왜 자신이 호위의 할머니의 말을 따라야 하지, 할머니가 반지를 너무 단단하게 묶는 바람에 반지가 사라져버렸는데?” 잠시 후 누군가가 숨죽여 웃기 시작했고 이것은 전 하객에게 번지기 시작했다. 라모나는 자신의 이모의 결혼식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하얀 양말을 보

여주게 될지라도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모나는 그녀의 꽃다발을 카펫 위에 올려 놓고 화관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닥에 엎드렸다. 엉금엉금 이모가 있는 쪽으로 기어갔다. 이모 치마까지 기어 간 후 이모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모가 놀라서 아래를 내려 보았을 때 그녀의 발을 들어 올려서 반지를 꺼냈다. 라모나는 다시 기어서 돌아온 후 자신의 꽃다발을 들어 올렸다. 반지를 신랑 들러리에게 건네주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꽃다발을 들고 다시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이모는 라모나에게 미소를 짓고 입 모양으로 고마워 라고 말했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다. 결혼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진행이 되었다. 오, 가장 로맨틱한 순간은 목사가 신부와 신랑에게 부부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호바트 작은 아빠는 이모에게 키스를 했다. 그리고 오르간은 기쁨의 노래를 연주했다. 결혼식 파티는 속도를 높여 호위의 할머니의 지휘 아래 결혼식장에서 피로연장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하객들을 줄을 서서 맞이했다.

하객들은 천천히 피로연장으로 들어가면서 신부에게 키스를 하고 신랑에게는 결혼을 축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저스와 라모나에게 귀엽고, 예쁘고, 꽃처럼 아름답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라모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 네가 오늘 결혼식을 구한 아이로구나," 또는 "네가 반지를 찾아서 다행이야."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다, "네가 결혼식을 구한 작은 영웅이로구나." 라모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한 노인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둑이처럼 귀엽게 생겼구나." 라모나는 이제껏 이렇게 행복한 것은 처음이었다.

베아트리체 이모의 반 아이들은 신부에게 키스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신부가 아이들 모두에게 키스를 해 주었다. 몇 아이들은 라모나에게 안녕하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몇몇은 라모나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거나 오늘 네가 반지를 찾아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 또 다른 소녀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녀가 입은 드레스가 아주 예쁘다고 말했다. 어떤 소년들은

이렇게 물었다. “왜 신발을 신지 않았니?” 라모나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행복해서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언제나 마지막은 있다. 하객들과의 인사가 끝났을 때 호위의 할머니는 라모나에게 반지를 찾아줘서 고마웠다고 진심으로 인사했다. 그리고 진심을 담은 미소를 지으며 라모나를 보고 예쁘다고 이야기 해 줬다.

웨이터들은 작은 샌드위치, 펀치, 그리고 샴페인이 담긴 쟁반을 날랐다. 라모나는 이모네 반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샌드위치를 두 개씩만 먹는 것을 눈치 챘다. 이모가 그들에게 교양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아무도 펀치를 흘리거나 쏟지 않았다.

라모나는 샌드위치를 3개를 먹었다. 결혼식의 일원으로써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팠다. 그녀가 샌드위치를 야금야금 먹고 있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비저스에게 속삭였다. “줄이 있으면 우리 신발을 묶어서 호위의 작은 아빠의 차에 매달아 놓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신발 못 신잖아.”

비저스는 평소처럼 그 아이디어를 듣고 즐거워했다. “어딘가에 줄이 있을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호위에게 물어볼게.” 라모나가 대답했다.

호위는 벽에 기대어 자기 몫의 샌드위치 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 치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모네 반 아이들이 그런 호위를 존경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자 호위는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다. 호위도 이 아이디어를 듣고 좋아했다. “난 바지에 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모네 반 아이들에게 줄이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로부터 줄을 얻을 수 있었다. 라모나는 화단에서 신발들을 꺼냈다. 그녀는 피로연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비저스도 그랬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비저스는 그녀 또래의 어떤 한 소년이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한 다는 것을 눈치 챘다. 게다가, 신부가 막 웨딩 케이크를 자르려고 하고 있었다.

“네가 해.” 라모나가 호위에게 신발들을 떠맡겼다.

“알겠어,” 호위는 승낙했다. 그리고 신나 하며 피로연장을 빠져나갔다. 줄을 가지고 있던 아이도 호위와 함께 나갔다. 그러고는 웨딩 케이크 커팅식이 끝났을 때 기쁜 표정으로 돌아와서 그들 몫의 케이크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

라모나는 호바트 작은 아빠에게 그 동안 불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것을 계속 피해 왔었다. 작은 아빠는 그런 라모나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왔다. “오늘 반지를 찾아서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게 해준 내 새 조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그가 말하고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의 수염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따갑지 않았다.

“고마워요 이모부,” 그녀가 말했다. 그를 처음으로 이모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좋구나, 이모부라고 불러줘서.” 그리고 드레스 사러 같이 갔던 것도 고맙구나.”

“천만에요.” “그리고 용감한 조카 한 명이 더 생겨서 좋다.” 호바트 이모부와 라모나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 평화여 영원 하라!

신부는 부케를 던졌다. 라모나와 비저스는 누가 부케를 잡을 지 추리했다. 부케를 잡은 사람이 다음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는 쌀과 곡식세례를 받고 웃음을 터트렸다. 그리고 호바트 이모부의 트럭을 타고 떠났다. 차 뒤 범퍼에 달려 있던 하얀색 신발이 춤을 추었다. 결혼식은 끝이 났다.

라모나네 가족은 데이 할아버지가 빌린 리무진에 올라탔다. 그리고 행복한 한숨을 내쉬며 고급스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라모나는 이 소파의 솜으로 곰인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소파는 부드럽고 폭신평신했다.

“트럭 뒤에 달려 있는 하얀 신발들 재미있었어,” 콤비씨가 말했다. “어디서 봤던 신발들 같은데.”

두 소녀는 웃음을 터트렸다. “발이 아팠어요,” 라모나가 고백했다. “신발이 너무 작았어요.”

콤비 부인은 엘지가 있는 배 위에 팔을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지 못했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생각했어야 했는데.”

라모나는 부모님 두 분 모두 비저스의 신발은 라모나가 자라서 신을 수 있게 놔둬야지 하고 말하지 않아서 놀랐다.

“배가 고프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딸을 결혼 시키는 건 힘든 일이야, 그리고 그 양증맞은 결혼식 음식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아. 집에 도착하면 피자를 주문해야겠다.”

피자! 라모나는 생각했다. 리무진과 피자! 완벽한 날이었다.

10

또 다른 큰 사건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 모두는 허무함을 느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느끼는 허무함보다 더 컸다. 아주 신난 결혼식 뒤에 재미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데이 할아버지는 햇빛이 비치고 셔플보드 게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콤비 씨는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친구들은 산이나 바다로 캠프를 떠났다. 호위와 윌라 진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딸들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지,” 콤비 부인이 물었다.

“할 일이 없어요.” 비저스가 대답했다.

라모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평을 하면 엄마가 옷장을 정리하라고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책이라도 읽으렴,” 엄마가 말했다. “둘 다 책을 읽어.”

“제가 가진 책은 수백 번도 더 읽었어요,” 라모나는 항상 좋아하는 책은 여러 번 읽곤 했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렴.” 콤비 부인이 짜증나는 투로 얘기했다.

“너무 더워요.” 라모나가 불평했다.

콤비 부인은 시계를 흘끔 쳐다보았다.

“엄마 누구 올 사람 있어요?” 라모나가 물었다. “시계를 왜 계속 보는 거예요?”

“응 그랬지.”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어떤 사람.” 큰 한숨을 쉬며 라모나 엄마는 소파에 몸을 뉘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시계를 확인하고 눈을 감았다. 두 소녀는 죄책감이 들었다. 가여운 엄마는 아기가 계속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훨씬 더 더웠다.

“엄마 괜찮아요?” 비저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난 괜찮아,” 킴비 씨의 목소리로 엄마가 말했다. 두 소녀는 엄마의 목소리에 놀라서 착하게 행동했다.

그날 저녁, 두 자매는 엄마를 도와 시원한 참치 샐러드와 얇게 자른 토마토를 준비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킴비 씨는 신선한 파인애플, 파파야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하와이안 홀리데이 행사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슈퍼마켓은 스테이크, 구운 콩, 토마토소스 그리고 칠리를 특별한 가격에 판매하는 웨스턴 바비큐 주간을 준비하고 있어. 그는 야생마를 창문 앞에 그리기로 계획했다.

킴비 부인은 샐러드를 조금씩 먹으면서 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빠가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라모나가 말했다. 라모나는 아빠가 마켓 매니저이기도 하지만 화가이기도 해서 행복했다.

“박물관에 전시하는 작품과는 달라.” 라모나 기대만큼 행복해 보이지 않는 아빠가 말했다.

킴비 부인은 의자를 뒤로 밀더니 시계를 보았다. 모두가 엄마를 쳐다보았다.

“의사에게 전화 할까?” 킴비 씨가 물었다.

“네 전화해 주세요.” 킴비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배를 껴안고 숨을 내쉬었다. “후~”

라모나와 비저스는 흥분과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라모나네 다섯 번째 가족이 곧 태어날 것이다.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킴비 씨는 의사에게 병원에 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비저스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엄마가 몇 주 전부터 싸놓은 가방을 가져왔다.

퀸비 부인은 그녀의 딸들에게 키스를 했다. “걱정 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별 일 없을 거야. 착하게 있어 아빠는 최대한 빨리 집에 올 거야.” 그녀는 허리를 숙여서 배를 다시 한 번 끌어안았다.

집은 갑자기 텅 비었다. 두 자매는 도로 밖으로 나가는 차 소리에 집중했다. 차 소리는 차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흠,” 비저스가 말했다. “우리는 설거지를 하는 게 좋겠어.”

“내 생각도 그래.” 라모나는 지하실을 포함해서 모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 보았다.

“피키피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무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참치 샐러드를 줬을 텐데.” 비저스는 남아 있는 음식을 굵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놀랍게도 라모나가 갑자기 눈물을 터트렸다. 그리고 행주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가 집에 왔으면 좋겠어.”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비저스는 그녀의 비누가 묻은 손을 자신의 무릎이 찢어진 바지에 닦았다. 그리고 한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라모나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라모나, 걱정 마.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나는 네가 태어나던 날이 기억나.”

라모나는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녀가 원한다면 그녀의 언니는 위로해 줄 수 있었다.

“네가 태어났고 엄마에겐 아무 일도 없었어.” 비저스는 라모나에게 깨끗한 행주를 건네주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오리건 주에는 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었다. 두 자매가 텔레비전을 켰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병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있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뛰고, 소리 지르고, 명령을 내렸다. 재빨리 그들은 텔레비전을 껐다. “베아트리지체 이모와 호바트 이모부가 잘 지내길 바라.” 라모나가 말했다. 두 자매는 그들이 사랑하는 이모가 이런 힘든 시간에 함께 있어서 위로해 주길 바랐다. 그녀는 항상 가족들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그녀는 트럭을 타고 알래스카로 가기 위해 캐나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이

다. 라모나는 곰들 진짜 곰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트럭 뒤에 매달아 놓은 신발 두 켤레가 아직도 달려 있는지 궁금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을 때 라모나는 배에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비저스는 전화를 받으러 달려갔다.

“네~.” 비저스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아빠. 아니에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 통화가 끝났을 때, 그녀는 라모나에게 가서 이야기 했다. 라모나는 소식을 듣기 위해 호들갑을 떨었다. “엘지는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 아빠는 엄마 곁에 같이 있어 주고 싶대. 우리끼리만 있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셨어.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고 아빠는 우리보고 용감하다고 했어.”

“아~.” 라모나는 아빠가 돌아오길 바랐다. “그래, 난 용감해,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저녁이 평상시와 다르게 따뜻했지만 창문을 전부 닫았다.

“우리는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비저스가 말했다. “너만 좋다면 나랑 같이 자도 좋아.”

“아빠를 위해 불을 켜 놓는 것이 좋겠어.”

라모나는 언니의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거실과 복도 그리고 현관에 있는 모든 불을 켰다.

“이제 아빠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녀가 설명했다.

“좋은 생각이야,” 비저스가 동의했다. 두 자매는 불을 켜 놓으니 더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엘지가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모나가 말했다.

“나도 그래,” 비저스가 맞장구 쳤다.

두 자매는 문을 여는 열쇠 소리가 나기 전까지 살짝 잠이 들었다. “아빠?” 비저스가 외쳤다.

“응 아빠야.” 콤비씨가 복도를 따라 비저스의 방으로 왔다. “좋은 소식이야. 로베르타 데이 콤비, 6파운드 4온스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울었어. 엄마도 건강해.”

거의 잠이 깬 라모나가 물었다, “로베르타가 누구예요?”

“네 여동생이지,” 그녀의 아빠가 대답했다. 나와 이름이 같아.”

“여동생.” 이제 라모나는 완전히 잠에서 깬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앨지로 불렀다. 엄마가 당연히 아들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 예쁜 여동생이야,” 그녀의 아빠가 말했다. “이제,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렴. 새벽 4시야, 아빠는 7시 반에 일어나야 해.”

다음날 아침, 퀸비 씨는 늦잠을 자서 아침을 서서 먹어야 했다. 그는 문을 반쯤 나가다 말고 말했다. “내가 일 끝내고 집에 오면 후퍼 버거를 저녁으로 먹고 엄마와 로베르타를 보러 갈 거야.”

그 날은 매우 길고 외롭게 느껴졌다. 공원에서 수영 교습을 받고 도서관에도 다녀왔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로베르타가 어떻게 생겼을 지 궁금해.” 비저스가 말했다.

“아기가 아기침대를 벗어날 정도로 자라면 누구랑 방을 같이 쓸까,” 라모나가 걱정했다.

두 자매가 행복했던 유일한 순간은 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였다. 엄마는 로베르타가 아주 예쁘고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빨리 로베르타랑 집에 가고 싶고 두 어린 딸들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말은 들은 비저스와 라모나는 기뻐했다. 그들은 청소기를 돌리고 집안 먼지를 청소했다. 청소를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흘렀다. 아빠는 매우 피곤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는 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햄버거를 먹고 새 식구를 보러 갔다.

라모나는 병원의 계단을 오르면서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다. 병원 방문객들은 꽃을 든 사람도 있었고 걱정스런 얼굴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 엘리베이터를 탔다. 간호사들은 서둘렀고, 확성기에서는 의사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라모나는 간신히 흥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자 그녀는 그녀의 배가 아직 1층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아빠는 복도 끝 쪽으로 두 딸을 데리고 갔다.

“실례합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들은 놀라서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산부인과 병동에 들어 갈 수 없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꼬마 숙녀, 너는 내려가서 로비에서 기다리렴.”

“왜 그래야 하죠?” 퀴비 씨가 말했다.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접촉성 전염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다. “우리는 아기들을 보호해야 해요.”

“라모나, 미안하구나,” 퀴비씨가 말했다. “몰랐어. 간호사 언니가 말한 대로 하렴.”

“내가 *세균덩어리* 라는 거 예요?” 라모나가 굴욕감을 느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샤워 했어요 후퍼 버거 먹을 때 손도 씻었어요. 난 완전히 깨끗해요.”

“아이들은 가끔 병에 걸려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어,” 퀴비씨가 설명했다. “이제 언니가 되었으니 내려가서 우리를 기다리렴.”

라모나는 실망으로 인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러나 그녀는 곧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혼자 로비에 도착하자 기분이 다시 나빠졌다. 그 간호사는 그녀를 꼬마 숙녀라고 불렀고 아빠는 언니가 되었다고 했다. 난 뭐지? 그냥 세균덩어리 여자아이야.

라모나는 조심스럽게 모조가족 소파 끝에 걸터앉았다. 만약 의자에 기대 앉는다면 소파에 있는 세균이 그녀에게 묻거나 반대로 그녀가 소파에 세균을 묻힐 수도 있었다. 그녀는 침을 힘겹게 삼켰다. 그녀의 목이 따가운가? 만약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엄마가 하던 것처럼 손으로 이마를 만져 보았다. 그녀는 열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마는 따뜻했다. 조금 뜨거운 것도 같았다.

라모나가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수두에 걸렸을 때처럼 간지러워서 긁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마가 간지러웠다. 등도 다리도 간지러웠다. 라모나는 몸을 굽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라모나를 보다가 다른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라모나는 기분이 더 나빠졌다. 그녀는 점점 더 가려웠고 더 심하게 긁었다. 그녀는 그녀의 따가운 목이 어떤가 보려고 종종 침도 삼켜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블라우스를 풀어 목 주변에 발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

도 없었다. 그녀는 콧물이 나는지 확인 해 보려고 종종 킁킁 코를 들이마셔 보았다.

이제 라모나는 화가 났다. 만약 그녀가 바로 여기 오래된 병원에서 어떤 끔찍한 질병에 걸렸다면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어린아이들은 세균을 옮긴다는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병원에는 세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모나는 끔지락거렸다. 그리고 어깨 날 사이 팔이 닿기 어려운 부분을 긁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양 손으로 머리를 긁었다. 사람들은 멈춰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는 주머니에 청진기를 넣고 있었는데 서둘러 로비로 와서 라모나를 살펴보았다. 멈춰서 라모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괜찮니?” 그가 물었다.

“끔찍해요.” 그녀는 본인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간호사가 내가 너무 세균이 많아서 우리 엄마랑 동생을 볼 수 없대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저는 여기에서 어떤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알겠다,” 의사가 말했다. “입을 열고 아~하고 말해보렴.”

라모나는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아~ 했다.

“흠,” 의사는 중얼거렸다. 그는 라모나가 놀랄 정도로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청진기를 꺼내서 그녀의 가슴과 등에 대고 소리를 들었다. 의사가 소리를 들을 때 라모나는 가슴이 쿵광거렸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내 몸 속에 먼가 잘못되었나? 왜 아빠는 안 오는 거지?

의사는 그가 의심하던 병이 확실하다는 듯이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에는.” 그가 말했다. 그는 처방전 노트를 꺼냈다.

약, 워. 라모나는 경련이 멈췄다. 그녀의 코와 목은 괜찮은 것 같았다. “저는 괜찮아 졌어요.” 그녀는 의사의 처방전을 불신을 담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의사에게 장담했다.

“급성 형제자매 콤플렉스야. 여기선 이상한 일도 아니지,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단다.” 그는 그가 적은 처방전을 찢어 라모나에게 주면서 아빠에게 주라

고 말했다. 그리고 서둘러 반대편 복도로 갔다.

라모나는 그 질병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의사가 휘갈겨 쓴 글을 읽으려고 노력했으나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선생님이 칠판에 또박또박 써 준 글만 읽을 수 있었다.

다시 가렵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빠와 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 종이 쪽지를 계속 보고 있었다. “로베르타는 아주 작아.” 비저스가 즐거워하며 말했다. “그리고 아기는 정말 귀여워. 둥근 코를 가졌고 오, 네가 동생을 보게 되면 동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난 아파,” 라모나가 최대한 불쌍한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끔찍한 병에 걸렸어. 의사도 그렇게 얘기 했어.”

비저스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로베르타는 갈색 머리를-”

퀸비 씨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라모나, 그게 다 무슨 말이니?”

“의사가 무슨 콤플렉스 같은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아빠에게 그녀의 처방전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한쪽 어깨를 긁었다.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병에 걸리고 있는 걸 거예요.”

퀸비 씨는 휘갈겨 써진 글을 읽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는 로비에서 라모나를 안아 올리더니 꼭 껴안아 주고 키스를 해 주었다. 간지러움이 멈췄다. 라모나는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너는 형제자매 콤플렉스에 걸린 거야.” 그녀의 아빠가 설명했다. “콤플렉스는 열등감 같은 걸 의미해.”

라모나는 형제자매의 뜻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빠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남자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이 그에게 형제자매가 되었었다.

“의사 아저씨가 네가 동생도 못 보게 되어서 걱정되고 화가 난 것을 이해하고 너에게 관심을 가져 주라고 처방전에 써 주신 거야.” 퀸비 씨가 설명했다. “자 그럼 이제 아빠가 선채로 잠들기 전에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비저스가 말하길 로베르타는 너무 귀여워서 자매라는 멍청한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다고 했다. 라모나는 바보같이 느껴졌지만 기분은 훨씬 나아졌다.

다음 3일 동안, 라모나는 병원에 갈 때 책을 가지고 가서 로비에 앉아서 기다

렸다. 하지만 책은 읽지 않았다. 라모나는 새롭지만 아직은 낯선 로베르타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 심통이 났다.

4일째 되는 날, 퀴비 씨는 한 시간 일찍 스포라이트 마켓에서 일을 마치고 비저스와 라모나를 데리러 왔다. 둘은 깨끗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세 가족은 엄마와 동생을 데리러 병원으로 갔다.

라모나는 분홍색 포대기에 아이를 싸서 안고 있는 엄마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언니 옆에 바짝 붙어 섰다. 간호사가 엄마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밀었고 아빠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엄마 못 걷는 거야?” 그녀가 속삭이며 물었다.

“엄마는 당연히 걸을 수 있어,” 비저스가 대답했다.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병원을 나가다가 넘어져서 백만 달러짜리 고소를 하지 않길 바라는 거야.”

라모나 엄마가 두 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로베르타의 얼굴은 분홍색 포대기에 쌓여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간호사는 라모나에게 아기 얼굴을 보여 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동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까지 휠체어를 밀었다.

“이제 아기 얼굴 봐도 되요?” 라모나가 즐랐다. 엄마와 로베르타는 앞좌석에 앉았다. 라모나와 언니는 뒤 자석에서 아기 바구니가 있는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당연히 봐도 되지.” 퀴비 부인은 라모나가 이제껏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예쁜 말로 말했다, “오, 라모나, 엄마는 우리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엄마는 아이를 라모나가 볼 수 있게 돌려주었다.

라모나는 앞좌석에 기대어 처음으로 새로 생긴 동생을 보았다, 그녀는 로베르타에게 세균이 옮을 까봐 숨을 꼭 참았다. 로베르타는 *우리아이 이름 짓기* 책의 표지에 나오는 아이처럼 생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밝은 분홍색이었다. 그리고 팜플렛의 표지에 나와 있는 아이처럼 매끈하고 밝은 머리 색이 아닌 어두운 색이었고 아무렇게나 뽀뽀 있었다. 라모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 귀엽다거나 사랑스럽다는 말이 어울

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로베르타는 네가 태어났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 퀴비 부인이 라모나에게 말했다.

“그래요?” 라모나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한 때 빨갛고 쭈글쭈글한 작은 아기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럼, 라모나는 새로 태어난 동생이 어떠니?” 퀴비씨가 물었다.

“동생은 너무 - 너무 작아요,” 라모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로베르타가 그녀의 회청색의 눈을 떴다.

“엄마!” 라모나가 외쳤다. “동생 눈이 사시예요.”

라모나 엄마는 웃음을 터트렸다. “원래 아기들은 가끔 눈을 사시로 뜨곤 해. 아기들은 자라면서 눈에 초점 맞추는 법을 배우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로베르타는 잠깐 동안 똑바로 쳐다보다가 다시 사시가 되었다. 로베르타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른다는 듯이 입을 오물거렸다. 그녀는 훌쩍이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팔이 무엇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한 쪽 팔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왜 아기 잠옷 소매 끝에 이런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라모나가 물었다. “손을 감싸기 위한 거란다.”

“아이가 스스로 굽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퀴비 부인이 설명했다. “아기들은 너무 어려서 손톱이 몸을 할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거든.”

라모나는 의자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댔다. 내가 로베르타처럼 생긴 적이 있다니. 놀라워! 그녀는 한 때 아주 작았었지만 지금은 자랐다. 그녀가 스스로 머리를 빗을 수 있을 때부터 그녀의 머리는 차분해 졌고 그녀의 손과 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녀가 물었다.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아이로 사는 것은 힘든 것 같아.” 라모나는 마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발견이라도 한 듯이 얘기했다. 그 말 안에는 엄마의 팔에 안겨 있는 작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 않았던 사랑과 동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 식으로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퀴비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라모나 말이 맞네,”

“성장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야,” 콤비씨가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면서 말했다. “성장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

“저도 알아요,” 라모나가 말했다. 라모나는 이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았다. 치아가 빠졌을 때, 진짜 목이 아팠을 때, 싸웠을 때, 선생님을 이해 할 수 없었을 때, 갖고 싶었으나 부모님이 사 줄 형편이 안되었던 자전거, 부모님이 싸우셔서 걱정했던 일, 의도하지 않았으나 언니에게 상처를 줬던 일, 그리고 호위네 집에서 엄마가 일을 마치고 데리러 올 때까지 있었던 길고 지루했던 오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재미있지 않아요?” 그녀는 아빠가 집 앞 도로에 차를 대고 있을 때 말했다.

“머가 재미있어?” 엄마가 물었다.

“저는 로베르타처럼 작았고 쭈글쭈글하고 눈을 사시로 뺐어요.” 라모나가 말했다. “지금의 내 모습 좀 봐요. 너무 멋져요!”

“바보 같은 실수 할 때만 빼고,” 비저스가 말했다.

라모나는 아주 작은 로베르타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웃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네, 멋지고 때론 바보 같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라모나는 행복했다. 그녀는 성장하는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작가 소개

비버리 클리어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오리건 주 맥민빌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암힐에 있는 농장에서 6살 때 까지 살다가 포틀랜드로 이사를 갔다. 대학을 졸업 한 후 워싱턴에 있는 야키마에서 초등학교 사서로 일을 했다. 그녀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 작가에 도전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쓴 책은 헨리 허긴스였다. "우리 같이 어린 아이들에 관한 책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어떤 소년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였다.

클리어리는 아동 문학에 지속적인 기여를 한 것을 인정받아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주관하는 로라 잉겔스 와일더 상을 포함하여 권위 있는 상을 많이 받았다. *헨쇼씨* 라는 작품으로는 1984년 뉴베리 상을 받았다. 그리고 8살이 된 *라모나 콰비*, 와 *라모나와 아빠* 라는 작품은 Newbery honor로 지정되었다. 게다가, 그녀의 책들은 35개 주 전체에서 청소년 부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선정되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수많은 캐릭터들은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클리어리씨는 현재 캘리포니아 연안 지역에 살고 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비버리 클리어리 작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beverlycleary.com

”

라모나는 그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 까요.

1

라모나 새로운 소식을 알리다.

라모나 콤비는 9살이 되었다. 그녀의 머리와 눈은 갈색이고 충치는 없다. 그녀는 콤비 부인, 콤비 씨, 비저스라고 불리는 실제 이름은 베아트리체인 언니가 있다, 그리고 -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 - 아빠의 이름을 딴 여동생 로베르타 콤비가 있다.

“작은 손톱 좀 봐,” 라모나가 자고 있는 로베르타를 보며 경이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눈썹도 정말 작아. 그녀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야, 단지 작을 뿐이야.” 라모나는 빨리 자기 여동생에 대한 소식을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리고 학교 가는 날이 빨리 돌아오길 바랐다.

마침내 학교 가는 날이 되었다. 따뜻한 9월이었다. 라모나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단장했다. 손에는 점심 도시락을 들고, 폴짝폴짝 뛰어서 가다가 또 한 발로 폴짝폴짝 뛰어서 갔다. 길가에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다. 라모나는 버스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라모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소녀들 중 한 명일뿐이었다. 4학년 생활은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최고였다.

라모나는 처음으로 버스 정류소에 도착했다. 정류소는 피트 아줌마네 집 앞에 있었다. 피트 아줌마는 밖에 나와서 집 앞 계단을 쓸기 시작했다.

“피트 아줌마, 안녕하세요,” 라모나가 외쳤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게요! 제 동생이 태어난 지 두 달이 되었어요.”

“좋겠구나,” 피트 아줌마가 이웃에 태어난 새 아이에 대해 기분 좋게 인사해주었다. 아기들은 그녀의 집 앞에 잔디밭에 있는 버려져 있는 사탕 껍질이나 구 철자로 쓰여진 신문들과 상관없었기 때문이다.

라모나는 이미 로베르타와 친숙한 호위가 올 때까지 사방치기 놀이를 하는 척했다. 정류소에는 라모나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속속 도착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도 있었다. “라모나, 안녕,” 호위가 인사했다. 그리고 도로와 나무 사이의 길게 펼쳐져 있는 풀밭 위에 있는 나무에 기대섰다. 그는 점심 도시락을 열고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다. 라모나는 호위가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귀찮아서 저러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기 남자 아이야!” 피트 아줌마가 외쳤다. “꼬마야, 종이 쪼가리나 오렌지 껍데기 같은 것을 내 집 앞에 흘리지 말거라.” 그리고 내 잔디에서 떨어져!”

“알겠어요.” 호위는 도로 쪽으로 이동하면서 샌드위치를 한 입 깨물었다. 호위는 쉽게 흥분하지 않았다. 그 점이 라모나를 가끔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쉽게 흥분했다. 그녀는 그렇게 신나는 것이 좋았다.

노란색 버스가 도착했을 때, 라모나는 첫 번째로 버스에 올라탔다. 그녀는 다른 4학년 학생인 친구 건너편 의자에 폴짝 앉았다. 그 학생 이름은 데니였고 *선구자*라고 적힌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라모나는 그를 *야생 원숭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가 운동장에 있을 때 원숭이 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라모나는 그가 여름방학 동안 이사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 여동생이 생겼어,” 그녀가 그에게 알렸다.

야생 원숭이는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쳤다. “라모나가 한 명 더 생겼군,” 그가 탄식했다.

라모나는 미소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너도 남동생이 있잖아,” 그녀는 그에게 상기시켰다.

“알아,” 야생 원숭이가 대답했다, “근데 우리는 그를 애완동물로 생각하고 있어.”

라모나는 그에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